

서울거리 예술축제

SEOUL STREET
ARTS FESTIVAL

서울거리 예술축제

SEOUL STREET
ARTS FESTIVAL

www.festivalseoul.or.kr



www.festivalseoul.or.kr

2017.10.5-10.8

@서울광장 및 도심일대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Staff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한
지역문화본부장	한지연
축제팀	장재환 팀장, 우상욱, 김수연, 김영규, 강민정 서금슬, 장옥영, 김유리, 박태준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추진단

예술감독	김종석
기술 총감독	조형제
공연	이민희 총괄PD, 김은하, 김경연, 소순우
기획홍보	송지연 총괄PD, 한지연, 이나래, 정은솔, 강해림
운영	이슬기, 서가진
청년코디네이터	김성현, 박민형, 신동호, 신희경, 최정문, 한승민

축제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위원	서정협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유연식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윤성진	한강문화프로젝트 총감독
	윤종연	한국거리예술협회 대표
	윤종현	축제기획자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수택	ACC광주프린지인테네셔널 총감독
	최석규	아시아나우 대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서정협
문화예술과장	장화영
축제진흥팀장	김남수
주무관	신명기, 장경진, 정인애

(주)씨포스트

축제총괄	인성진
축제운영	온정훈, 이영석, 김다미, 김희섭 라금희, 이상선, 안효정, 주희경
기술감독	김성준, 최경수, 남기재, 최창식, 홍지훈 이현주, 조한나, 하태중, 정찬홍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10.5-10.8

@서울광장 및 도심일대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무심코 지나치던 거리에서 만나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

당신에게 전하는 유쾌한 위로

DELIGHTFUL
COMFORT FOR YOU

- 04 일정표
SCHEDULE
- 08 공식초청작
OFFICIAL PROGRAM
- 78 자유참가작
OFF PROGRAM
- 94 기획프로그램
FEATURE PROGRAM

CONTENTS

SSAF2017 Schedule

9.28 ^{Thu} ~ 10.8 ^{Sun}				
광화문광장 Gwanghwamun Square	20:00	공식	키프레임 KEYFRAMES	180'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10.6 ^{Fri}				
서울광장 Seoul Plaza	13:00	공식	나를 던져줘 Lance Moi En L'air	25'
	13:30	자유	청춘예찬 Ode to Youth	20'
	14:30	자유	공중그네 하어로 Trashpeze	30'
	15:00	공식	플라이 업 Fly up	30'
	15:30	자유	청춘예찬 Ode to Youth	20'
	16:00	공식	나를 던져줘 Lance Moi En L'air	25'
	16:30	자유	공중그네 하어로 Trashpeze	30'
	17:00	공식	기둥 Pelat	45'
	18:00	공식	룩 룩 Look Look	60'
	20:00	공식	무아레 Muaré Experience	50'
창계광장 Cheonggye Plaza	22:00	공식	캠핑연극 우주인 Camping Theatre; the Spaceman	70'
	14:00	자유	침침체리 Chim Chim Che-ree	30'
	16:00	자유	돌아뻗 고수의 이상한 실험실 PROFESSOR PLUNGER	30'
	17:00	자유	복 실려가요 놀랑 2017 BLESS YOU! NOLYANG 2017	40'
	18:00	자유	침침체리 Chim Chim Che-ree	30'
창계천로 창계천변 Cheonggyecheon-ro	20:00	공식	자글링 옴니버스 Juggling Omnibus	50'
	13:00	공식	인왕산 호랑이 바위 The Tiger Rock of Inwang Mountain	45'
	14:00	공식	비상 Immortels-L'envol	40'
	16:00	공식	인왕산 호랑이 바위 The Tiger Rock of Inwang Mountain	45'
	17:00	자유	유랑호프 Unemployed Hop	50'
	17:30	공식	고글수레 Grandma's Cart	50'
	18:00	공식	비상 Immortels-L'envol	40'
	21:00	공식	불꽃을 따라 Su À Feu	50'
	13:00	자유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Questions about the Names of Body Parts	15'
	14:00	자유	테이프 라이엇 Tape Riot	45'
무교로 Mugyo-ro	15:00	공식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 Another people, Another street	45'
	16:00	자유	경상도 비눗방울 Gyeongsang Bubble	40'
	16:30	자유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Questions about the Names of Body Parts	15'
	17:00	공식	마사지사 Massager	60'
	18:00	공식	나, 봉앤줄 I, Bongnjeoul	30'
	19:00	자유	경상도 비눗방울 Gyeongsang Bubble	40'
	19:40	자유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25'
	20:00	공식	링더벨 Ring the Bell	35'
광화문광장 Gwanghwamun Square	19:00	공식	그래비티, 0 Gravity.0	55'
	20:00	공식	키프레임 KEYFRAMES	180'
	13:00	공식	들리는 몸 Sounding Body	30'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15:00	공식	우노 Uno	25'
	16:00	자유	고백 Go Back	25'
	17:00	공식	나들이 Picnic	40'
	19:00	공식	우노 Uno	25'
	21:00	공식	도시의 흔적들 Cooperatzia	70'
덕수궁물담길 Deoksugung-gil	17:00	자유	테이프 라이엇 Tape Riot	45'
서울신문사 앞 The Seoul Sinnmun	15:00	자유	네오피노 Neo-pino	30'
	18:00	자유	네오피노 Neo-pino	30'
문화이축기지 Oli Tank Culture Park	13:00	공식	소리 탐사대 Ear Trumpet	120'
	16:00	공식	소리 탐사대 Ear Trumpet	120'
	19:00	공식	단디우학 Dandi Fable	30'
서울로7017, 만리동, 서울역광장 Seoulto7017, Mali-dong, Seoul Station Plaza	15:03	공식	정소체험기록공연 [사적인 문장] 15:03, 15:43, 16:23 Space Experience Recording Theatre [A Private Sentence]	120'
	18:00	공식	행복의 나라로 Happ'y'ness	35'
축재전 곳곳 Arund Festival	14:00	자유	만약 길에서 광대를 만난다면 KOREAN KLOWN KONZEPT(K.K.K.)	240'

10.7 ^{Sat}				
서울광장 Seoul Plaza	13:00	공식	나를 던져줘 Lance Moi En L'air	25'
	13:30	자유	공중그네 허어로 Trashpeze	30'
	14:00	공식	스매시 Smashed	30'
	14:30	공식	플라이 업 Fly Up	30'
	15:00	공식	잡아주세요! Asuelto	40'
	15:30	공식	견우와 직녀 GYEONWU AND JIKNYEO	30'
	16:00	공식	나를 던져줘 Lance Moi En L'air	25'
	16:30	자유	공중그네 허어로 Trashpeze	30'
	17:00	공식	스매시 Smashed	30'
	17:00	자유	유랑호프 Unemployed Hop	50'
	17:30	공식	잡온론 Job on Loan	50'
	18:00	공식	룩 룩 Look Look	60'
	19:00	공식	기둥 Pelat	45'
	20:00	공식	견우와 직녀 GYEONWU AND JIKNYEO	30'
	21:00	공식	스파이더스 SPIDERS	40'
	22:00	공식	캠핑연극 우주인 Camping Theatre; the Spaceman	70'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13:00	기획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축제 <시,작,> Sizak: Small Festival by Citizens	60'
	15:00	기획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축제 <시,작,> Sizak: Small Festival by Citizens	60'
	17:00	기획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축제 <시,작,> Sizak: Small Festival by Citizens	60'
	20:30	공식	세익스피어소리극 <헤이 논 노니!> Hey no nonny!	50'
청계천로 청계천변 Cheonggyecheon-ro	14:00	공식	비상 Immortels-L'envol	40'
	18:00	공식	비상 Immortels-L'envol	40'
	19:30	공식	불꽃을 따라 Su A Feu	50'
	15:00	자유	돌아뻗 교수와 이상한 실험실 PROFESSOR PLUNGER	30'
무교로 Mugyo-ro	16:00	공식	마사지사 Massager	60'
	17:30	공식	고물수레 Grandma's Cart	50'
	18:30	자유	북 실러가요 놀랑 2017 BLESS YOU! NOLYANG 2017	40'
	19:00	공식	링더벨 Ring the Bell	35'
	20:30	공식	저글링 옴니버스 Juggling Omnibus	50'
광화문광장 Gwanghwamun Square	20:00	공식	키프레임 KEYFRAMES	180'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17:00	공식	나들이 Picnic	40'
	21:00	공식	도시의 흔적들 Cooperatzia	70'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13:00	공식	소리 탐사대 Ear Trumpet	120'
	16:00	공식	소리 탐사대 Ear Trumpet	120'
	19:00	공식	단디우화 Dandi Fable	30'
서울로7017, 만리동, 서울역광장 Seoullo7017, Mali-dong, Seoul Station Plaza	15:03	공식	청소체험기록공연 [사적인 문장] 15:03, 15:43, 16:23 Space Experience Recording Theatre [A Private Sentence]	120'
	18:00	공식	행복의 나라로 Happy'nness	35'
	19:00	공식	또 다른 민중, 또 다른 거리 Another people, Another street	45'
축제장 곳곳 Around Festival	14:00	자유	민악 길에서 광대를 만난다면 KOREAN KLOWN KONZEPT[K.K.K.]	240'

10.8 ^{Sun}				
서울광장 Seoul Plaza	13:00	공식	견우와 직녀 GYEONWU AND JIKNYEO	30'
	13:30	공식	나를 던져줘 Lance Moi En L'air	25'
	14:00	공식	스매시 Smashed	30'
	15:00	공식	잡아주세요! Asuelto	40'
	16:00	공식	나를 던져줘 Lance Moi En L'air	25'
	16:30	공식	스매시 Smashed	30'
	17:00	공식	기둥 Pelat	45'
	18:00	공식	스파이더스 SPIDERS	40'
	19:40	폐막공연	불꽃을 따라 Su A Feu(Finish) 서울광장 도축(세종대로 ~ 서울광장)	50'
	20:00	폐막공연	트랜스포밍 서울 Transforming Seoul	30'
	20:30	폐막공연	아시아체어샷 Asian Chairshot	20'
	12:00	폐막 프로그램	끝.장.대.로 <노는 대로: 체험프로그램> Closing Feast: Playing on the Street	300'
	13:00	폐막 프로그램	끝.장.대.로 <그 대로: 공연프로그램> Closing Feast: Performance on the Street 13:00 돌아뻗 교수의 이상한 실험실 PROFESSOR PLUNGER 14:00 잉여의 꿈 Dream of Invisibles	120'
세종대로 Sejong-daero	15:00	폐막 프로그램	끝.장.대.로 <움직이는 대로: 시민퍼레이드> Closing Feast: Parade on the Street	120'
	17:00	폐막 프로그램	끝.장.대.로 <그 대로: 공연프로그램> Closing Feast: Performance on the Street 17:00 잉여의 꿈 Dream of Invisibles 18:00 저글링 옴니버스 Juggling Omnibus	120'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19:00	폐막공연	불꽃을 따라 Su A Feu 세종대로 출발(세종대로 ~ 서울광장)	50'
	13:00	기획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축제 <시,작,> Sizak: Small Festival by Citizens	60'
	15:00	기획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축제 <시,작,> Sizak: Small Festival by Citizens	60'
	16:00	협력	서울문화재단-광주문화재단 교류협력 프로그램 <인물 위한 몸짓>	21'
청계천로 Cheonggyecheon-ro	17:00	기획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축제 <시,작,> Sizak: Small Festival by Citizens	60'
	18:00	공식	고물수레 Grandma's Cart	50'
무교로 Mugyo-ro	17:00	공식	마사지사 Massager	60'
광화문광장 Gwanghwamun Square	20:00	공식	키프레임 KEYFRAMES	180'
축제장 곳곳 Around Festival	14:00	자유	민악 길에서 광대를 만난다면 KOREAN KLOWN KONZEPT[K.K.K.]	240'

기획프로그램 Feature Program

서울광장 Seoul Plaza	10.5-8	10:00-20:00	페스티벌 라운지 Festival Lounge	상시
	10.6-7	10:00-12:00	키워드데이트 Keyword Date	120'
	10.5-8	12:00-21:00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Street Arts Exhibition Tour	상시
	10.5-8	12:00-20:00	예술후원캠페인: 우리 내기할까요? Art Donation Campaign	상시
축제장 곳곳 Around Festival	10.5-8	12:00-18:00	길동이랑 놀자: 길동이 유랑단 Let's Play with Gildongees: The Wanderers Gildongees	상시
	10.5-8	12:00-18:00	길동이랑 놀자: 움직이는 그림책방 Let's Play with Gildongees: Moving Library	상시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10.6-8	12:00-18:00	길동이랑 놀자: 우리의 빛나는 조각들 Let's Play with Gildongees: Our Shining Pieces	상시

공식초청작

OFFICIAL PROGRAM

무아레 Muaré Experience

키프레임 KEYFRAMES

비상 Immortels-L'envol

그래비티.0 Gravity.0

기둥 Pelat

우노 Uno

잡아주세요! Asuelto

스매시 Smashed

나를 던져줘 Lance Moi En L'air

소리 탐사대 Ear Trumpet

도시의 흔적들 Cooperatzia

불꽃을 따라 Su À Feu

룩 룩 Look Look

스파이더스 SPIDERS

마사지사 Massager

견우와 직녀 GYEONWU AND JIKNYEO

단디우화 Dandi Fable

나, 봉앤줄 I, Bongnjoule

고물수레 Grandma's Cart

행복의 나라로 Happy'nness

인왕산 호랑이 바위 The Tiger Rock of Inwang Mountain

나들이 Picnic

링더벨 Ring the Bell

장소체험기록공연 [사적인 문장] Space Experience Recording Theatre [A Private Sentence]

캠핑연극 우주인 Camping Theatre; the Spaceman

잡은론 Job on Loan

음악치력극 굿차 A Musical Super Strength Show

트랜스포밍 서울 Transforming Seoul

플라이 업 Fly up

들리는 몸 Sounding Body

일여의 꿈 Dream of Invisibles

저글링 옴니버스 Juggling Omnibus

세익스피어소리극 <헤이 논 노니!> Hey no nonny!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 Another people, Another street.

MUARÉ EXPERIENCE

10.5~6 20:00 | 서울광장 Seoul Plaza

In order to celebrate the opening of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Lee Seung-Hwan Band'(Korea) will be on the stage with the original members of Muaré Experience(Duchamp Pilot + VOALA).

'Lee Seung-Hwan', 'GOD of Performance', is a South Korean pop singer, rocker, songwriter and producer. He has released more than 10 different albums from his debut in 1989, also he has held more than 1,000 solo concerts with his band.



무아레 Muaré Experience

뒤샹 파일럿 + 보알라 × 이승환밴드
Duchamp Pilot + VOALA × Lee Seung-Hwan Band
아르헨티나+영국+스페인×한국 AR+UK+ES×KR



록 음악이 당신을 공중으로 떠오르게 하는 그 순간!

밴드 '뒤샹 파일럿'의 라이브와 '보알라'의 배우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는 <무아레>는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웅장한 공연이다. 힘차고 독창적인 음악과 거대한 조형물 위에서 이뤄지는 신비로운 공중 퍼포먼스는 서울 광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떠오르게 할 것이다! 특히 10월 5일 개막 공연을 위해, 한국의 '이승환 밴드'가 '무아레'의 무대에 함께 오른다.

스페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록 밴드 '뒤샹 파일럿'은 공중 퍼포먼스와 라이브 음악의 감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보알라'와 함께 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나라의 축제에서 환상적인 <무아레> 공연을 펼쳤다.

이들과 함께하는 '이승환'은 1989년 데뷔하여 <천일동안>,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이다. '공연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수 년째 지켜오며, 밴드와 함께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When rock makes you fly

<Muaré Experience> is a perfect fusion of rock concert and aerial performance which brings out intense exchanges of music arts and visual arts. This performance by the 'VOALA' performers hanging from the aerial sculpture in line with the live music of the band 'Duchamp Pilot' will leave an impressive experience through powerful and original music and images.

The rock band 'Duchamp Pilot' has their bases in Spain, England and Scotland. They've given fantastic performances at various festivals and events in more than 20 countries together with 'VOALA'. 'VOALA' is a company that creates sensational images with aerial performance and live music using interesting equipment in the background. With 'Duchamp Pilot', they have flown up into the skies of many countries in the world.

Supported by DK KIM FOUNDATION

STAFF & CAST

Idea by Gaston lungman (general production and composing) and Roberto Strada (scenic creation)
Artistic Coordinator_ Pablo Martin Cuello | Technical Coordinator_ Raul Vargas Martos | Production Coordinator_ Ifigenia Georgia Androutsopoulou | Actor_ Pablo Martin Cuello, Raul Vargas Martos, Sergio Palomares Vicente, Miguel Manzano Olmos, Joaquin Ribas Vergo, Joaquin Emmanuel Garcia | Actress_ Ifigenia Georgia Androutsopoulou, Irene Candela Aleman, Camila Manzano Olmos, Isabel Teruel Lillo, Elisabet Maria Gonzalez Olivas, Petra Torres Almendro Mazario, Maria Liliana Aymerich Ugaz, Rosa Ros Menarguez | Musician_ Gaston Luis lungman, Cuevas Nestor Emilio, Gareth Twist, Allan Robert Ferguson, Lee Seung-Hwan Band(이승환밴드) | Road Manager_ Lara Poto de la Camara | Rigger_ Sergio Fabian Zarate, Alvaro Pastor Martinez | Sound Technician_ Miguel Angel Calatayud | Light Technician_ Stephane Pierre-Antoine Viallon

50min



키프레임 KEYFRAMES

그룹 랩스
Groupe LAPS
프랑스 France

서울 도심에 들어닥친 반짝이는 녀석들!

신체 동작과 움직임을 본 따 디자인 된 녀석들이 장난기 넘치는 포즈를 취하며 서울 도심에 자리 잡았다! 이 녀석들은 <키프레임>만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장면들을 생동감 넘치는 동작들로 그려내며 축제 공간 안에 담긴 이야기를 환하게 풀어내간다.

'그룹 랩스'는 예술적,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상, 조명, 설치물 그리고 멀티미디어 장비를 이용해 예술적 영감을 발전시키는 단체이다.

Luminous characters invade Seoul City

These installations designed with principles of motion decomposition and kinematics are placed in a specific location that recreates the story of the place through a series of lights. <KEYFRAMES> connects different elements such as sculpture, film, and festival to transform the space and tell the story of the city through micro narrative.

'Groupe LAPS' is a company that develops artistic inspiration using visuals, lighting, fixtures and multimedia equipment based on their artistic and technological know-how.

Supported by                                      

STAFF & CAST

Artistic Director_ Thomas Veyssiere | 3D Animator_ Richard Le Bihan
Sound Designer_ Erwan Quintin | Programmer_ Pierre Froment
Technician_ Marco Cohen, Nadir Bouassria | Manager_ Anne Sophie Raybaut-Pères

180min



KEYFRAMES

9.28~10.8 20:00 | 광화문광장(잔디광장) Gwanghwamun Square

IMMORTELS- L'ENVOL

10.6~7 14:00, 18:00 | 청계천로 Cheonggyecheon-ro

• 이동형광장 Promenade Theatre

*서울거리예술축제 버전의 현상을 위해, 9명의 한국 배우와 9명의 프랑스 배우가 협업하여 워크숍을 진행해 작품을 완성했다.

*Cie Adhok's 'Echappées Belles' at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in 2015 had asked about, "What is it like to be growing old?", whereas 'Immortels-L'envol' deals with the youth problem of today. In order to perform Seoul Street Arts Festival version of, nine French actors and nine Korean actors have collaborated to complete the work.



비상 Immortels-L'envol

컴퍼니 아도크
Cie Adhok
프랑스 France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날아오르기 위한 청년들의 날갯짓

부모의 품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시작할 시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열기왕성한 나이, 하지만 청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뿐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크고 넓은 세상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고 싶다. 폭풍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과 부딪쳐보는 것, 어느 쪽이 나은 선택일까? 알 수 없는 미래로 몸을 내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을까?

'컴퍼니 아도크'는 연극과 무용 분야에 몸담았던 Doriane Moret와 Patrick Dordoigne이 2012년 설립한 프랑스의 예술 단체로, 특정 세대가 전체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의미를 탐구하는 이야기들을 다루며 해당 세대가 속한 커뮤니티와의 직접적인 작업을 선호한다.

Immortal flight of the hopeless youngsters

When youngsters leave parents' nest and start living in a new environment, everything seems to be possible at that age. However what is waiting for them is an unpredictable future. But they want to fly higher and farther in the big and wide world.

Waiting for the storm to stop or facing it. Which one is a better choice?
Who knows what will happen when you throw yourself into an unknown future?

'Cie Adhok' is a French arts company that was established in 2012 by Doriane Moret and Patrick Dordoigne who used to be involved in theatre and dance field. They deal with stories that explore the place and meaning of specific generation within the society, and prefer to work directly with the community where the selected generation belongs.



STAFF & CAST

Director_ Doriane Moret, Patrick Dordoigne | **Cooperative Director_** Anyoung Jeong(정안영)
Cast_ Insung Kang, Jihee Kang(Alice), Sunhyuk Kim, Yeeoun Kim, Yeahseok Yang, Hyerim Yang, Yeeun Yun(엘lyn), Weon Lim, Sungtaek Jeong, Hyewon Lee(강인성), 강지희, 김선혁, 김어은, 양예석, 양해림, 유예은, 임원, 정성택, 이혜민, Jonathan Aubart, Nathan Chouchana, Eliot Maurel, Jacob Auzanneau, Mattia Maggi, Tom Verschueren, Laurene Thomas, Yoanna Marilleaud, Ines Grunenwald
Technician_ Guillaume Patissier, Christophe Bras, Francois Hubert

40min



©Yvonne Espina

그래비티.0 Gravity.0

안 뢰르 무용단
Cie Yann Lheureux
프랑스 France

compagnie
yann
lheureux

<그래비티.0>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신체, 무용 그리고 중력을 자유롭게 가지고 노는 <그래비티.0>의 공간에 무용수들이 들어선다. 그들은 트램펄린과 구조물 위에서 구르고 뛰어다니고 기어오르고 추락하며 중력을 거슬러 솟구치기를 반복한다. 우리는 <그래비티.0>의 공간에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 연결 고리를 통해, 한 공간 안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안 뢰르'는 프랑스 몽펠리에에 기반을 둔 안무연출가이다. 그의 작품은 신체적, 개인적, 문화적 영역의 개념을 탐구한다. 그는 작품 전반에 걸쳐 관객, 예술가 그리고 신체와 공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Living together in the space with <Gravity.0>

Performers, authors of their own creativity, are steeped in a world of physicality, of dance and dalliance with gravity. They climb, they fall, they are afraid, they surprise each other, they linger in moments of suspended activity. Through the links that bind them, we look beyond their individual differences to try to glimpse mutual points of convergence.

'Yann Lheureux' is a choreographer based in Montpellier, France.

He calls into question notions of territory and identity, the cross-over of languages. His work explores the concept of physical, personal, and cultural realms. Throughout his work, he asks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artist as well as the body and the space.



STAFF & CAST

Director/Choreographer_Yann Eric Lheureux | Technician_Gilles Miot
Light Designer_Lucas Baccini | Sound Designer_Arnaud Bertrand | Scenography_Emmauelle Debeusch
Dancer_Raphael Perrenoud, Eliott Pineau, Tom Guichard, Emanuel Caetano, Yotam Peled

55min

GRAVITY.0

10.5 21:00 | 광화문광장(북측광장) Gwanghwamun North Square

10.6 19:00 | 광화문광장(북측광장) Gwanghwamun North Square

©Yvonne Espina

PELAT

10.5 18:00
10.6 17:00
10.7 19:00
10.8 17:00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 With the support of Fira l'arregal. El Graner centre de creació del cos i el moviment.
Festival Sismografi, Olot, L'Animal a l'esquena, Trayectos danza.



기둥 Pelat

호안 까탈라
Joan Català
스페인 Spain

기둥을 세우기 위한 특별하고 따뜻한 나눔

<기둥>은 무용, 서커스, 연극을 한데 줄길 수 있는 공연이다. 주인공은 신체, 움직임, 인간 행동, 장인 정신 그리고 전통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무용, 서커스, 연극 사이의 경계와 관객과 공연 사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어뜨리며 우리에게 잔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도구와 개인적인 기억, 두 가지 요소를 자연스럽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소통이 이끌어낸 작은 변화들로 더욱 특별해진다.

'호안 까탈라'는 조형과 움직임에 관한 예술을 유심히 바라보는 호기심 많은 관찰자이다. 그는 각자 다른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관객들을 공연에 직접 참여시킨다. 그가 그려내는 공간에서는 사람과 물체, 주변 환경이 서로 소통하며 놀이와 작업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다.

Special and moving power for the balance of the pillar

<Pelat> is a performance that contains dance, theater and circus. Based on research on body, movement, human behavior, craftsmanship, and tradition, he gives a message while breaking the boundaries between dance, circus and theater, as well as the boundary between audience and performance. With the natural remake of traditional technology and personal memory, this work becomes special as it communicates and makes changes with the audience.

'Joan Català' is a curious observer interested in the plastic and movement arts in which the body and/or the objects are communicators. He understands the scene as a space for dialogue between humans, objects and the environment where game and work melt together with the tools, experiences and ideas that each of us bring.

STAFF & CAST

Performer_ Joan Català | Assistant_ Oriol Català

45min



우노 Uno

델레베스 버티컬 댄스 컴퍼니
Delrevés Danza Vertical
스페인 Spain



세 사람. 하나의 벽. 움직임으로 이뤄지는 대화

<우노>는 만물이 균형을 이뤄 무너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인 'One'에 관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다른 이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그 자체를 인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한다. 벽을 밟고 'One'에서부터 시작되는 상호작용,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표현하는 행동과 움직임의 구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신체적 언어와 클래식 무용의 융합은 작품을 풀어나가는 도구가 될 것이다.

'델레베스 버티컬 댄스 컴퍼니'는 2007년 바르셀로나에서 Saioa Fernández 와 Eduardo Torres 가 설립한 단체이다. 델레베스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언어를 통해 버티컬 댄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Three People. A wall. Conversations by means of movement

<Uno> is about the importance of being part, getting the balance, and having everything under control. It is about the fear to look at, fear about glances, fear to know yourself and the fear. Loneliness. Going forward, running, and maybe breaking away, chasing what? What? Interactions, behaviors and movement structures by means of Fibonacci maths sequence. The fusion between the personal physical language and the classical dancing will be the instrument to carry out this performance.

The dance company 'Delrevés Danza Vertical' was founded in 2007 by Saioa Fernández and Eduardo Torres in Barcelona. Delrevés initiates new aspect of vertical dance through their original and innovative language.

Supported by   

STAFF & CAST

Directed by_ Saioa Fernández

Choreography-Performer_ Sheila Ferrer, Eduardo Torres, Saioa Fernández

Music Composition_ Manuel Dabove | Technician_ Genis Morral

Rigging_ Volátil | Management_ Agente 129 / Vicens Mayans and Ansó Raybaut

25min



UNO

10.5~6 15:00, 19:00 |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ASUELTO

10.7~8 15:00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Siu Mayhew



잡아주세요! Asuelto

허리칸
HURyCAN
스페인 Spain

HURyCAN

살이라는 아름다움, 살이라는 추함

거리 위에서 세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소동이 벌어진다. 그들은 역동적인 몸짓으로 서로를 떼어놓기도, 끌어당기기도 한다. 난폭하면서도 부드러운, 울음과 웃음이 섞여있는 <잡아주세요!>는 아름다우면서도 추한, 하지만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작품이다.

'허리칸'은 Candelaria Antelo와 Arthur Bernard가 2010년에 결성한 현대무용 단체이다. 독창적인 안무로 각국의 안무 콘테스트에서 수상하였으며, 2013년 '허리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새로운 작품인 <Je Te Haime>가 스페인 국제 연극무용 박람회에서도 최고 무용 퍼포먼스 상을 수상했다.

Life is beautiful and ugly, all at the same time

In the street, close to us, on the ground, there is a clash between three men and a woman. They tear each other apart, attracted to each other in a powerful dance, both violent and tender, with cries and laughter. <Asuelto> is an observation of reality: life as an organism, as a body in movement that transmits and shares its attributes. Magical and tangible, conceptual and sensitive, beautiful and ugly at the same time. But most of all: alive.

'HURyCAN' is a contemporary dance company established in 2010 by Candelaria Antelo and Arthur Bernard. With their creative choreography, they have won prizes at choreography contests in many countries. In 2013 they created the 'HURyCAN' company and premiered their new work <Je Te Haime> awarded at the 27 International Theatre & Dance Fair, Huesca(Spain), as the best dance performance.

STAFF & CAST

Choreography/Dance_ Arthur Bernard, Candelaria Antelo, Pau Colera Arias, Javier Gomez Auquer

40min



스매시 Smashed

간디니 저글링
Gandini Juggling
영국 UK



**100개의 빨간 사과, 9명의 배우, 4세트의 도자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평생 잊지 못할 티 파티로의 초대!**

<스매시>에서는 금단의 열매를 다루는 솜씨로 전통 저글링과 현대 서커스 사이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일곱 남자와 두 여자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 무용극 같기도 한 이 기발하고 개성 있는 작품은 현대 저글링에 대한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것이다!

‘간디니 저글링’은 세계적인 저글러 Sean Gandini와 Kati Ylä-Hokkala가 만든 단체로 현대 서커스의 선두에 서서 21세기의 저글링을 재창조하며 새로운 힘을 불어 넣고 있다.

**100 apples, 9 performers, 4 crockery sets.
A tea party that you will never forget**

In <Smashed>, the manipulation of the forbidden fruit takes a sagacious look at the strained relations between seven men and two women, kindly flaying traditional juggling and contemporary circus. This funny, inventive and characterful work is akin to dance theatre and will challenge your perception of contemporary juggling.

‘Gandini Juggling’ is a group founded by a world-class jugglers Sean Gandini and Kati Ylä-Hokkala. They are at the forefront of modern circus and reinventing 21st century juggling with a new strength.

Supported by   

STAFF & CAST

Director Sean Gandini | **Assistant Director** Kati Ylä-Hokkala

Performer Sean Gandini, Kim Huynh, Jose Triguero, Antek Klemm, Chris Patfield, Arron Sparks, Tedros Girmaye, Ifaki Sastre, Kati Ylä-Hokkala

30min

SMASHED

10.7 14:00, 17:0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10.8 14:00, 16:3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SMASHED was originally commissioned as a short outdoor piece for the Walk-in-Tra Space Festival at the National Theatre in 2010. Additional funding was received from the Arts Council England and La Brèche Centre for the Circus Arts to create the theatre version touring today.

*2017-18 연경 상조교류의 해 (UK/Korea 2017-18)의 공식 프로그램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is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XTRAX on Platform 4-UK, a programme designed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nd export of UK street arts. Supported by Arts Council England and delivered by XTRAX, this project aims to open up new markets internationally for the best work from UK street artists by creating showcase opportunities in collaboration with strategically significant partners in the UK and overseas.

LANCE MOI EN L'AIR

10.6~7 13:00, 16:0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10.8 13:30, 16:0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 2017-18 한영 상충극의 해(UK/Korea 2017-18)의 공식 프로그램
•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is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XTRAX on Platform 4(UK), a programme designed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nd export of UK street arts. Supported by Arts Council England and delivered by XTRAX, this project aims to open up new markets internationally for the best work from UK street artists, by creating showcase opportunities in collaboration with strategically significant partners in the UK and overseas.

• Commissioned by: Withket Walls, Out There International Festival of Circus & Street Arts and Winchester Hat Fair
• Co-commissioned by: Bournemouth Arts by the Sea Festival and Dance Village
• Supported by: Turtle Key Arts



©MansProduction photography



©MansProduction photography

나를 던져줘 Lance Moi En L'air

줄리 비안 & 레올리엔느
Joli Vyann & L'Eolienne
영국 & 프랑스 UK & FR



우리는 공중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나를 던져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들고, 던지며 의지하는 여러 동작과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강하면서 느슨할 수 있을까? 무거우면서도 가벼울 수는?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떠 있을 수는? 통제 당하면서도 순종적일 수는? 이 작품은 이처럼 상충하는 모순을 두 사람의 몸짓을 통해 드러내며 그들이 나누는 섬세한 교감의 순간들을 표현한다.

'줄리 비안'은 Olivia Quayle과 Jan Patzke가 2012년 설립한 단체로 서커스, 무용 그리고 연극의 획기적인 퓨전을 통해 무용과 서커스를 구분 짓는 선을 흐릿하게 만들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레올리엔느'는 <나를 던져줘>를 연출했으며, 또한 Xavier Dermertiac와 함께 <나를 던져줘>의 음악 작업을 담당했다.

Can we be dropped into the air?

<Lance Moi En L'air> is a work about feelings and sympathy between two people that cause mutually compatible contradictions. Can we be strong, yet loose? Heavy, but light at the same time? What is stepping and floating on the ground? Is it possible to be obedient even when controlled? This work explores a mixture of strengths and weakness.

'Joli Vyann' was created in June 2012 by Olivia Quayle and Jan Patzke. 'Joli Vyann' is an innovative fusion of circus, dance and theatre, blurring the boundaries of where dance ends and circus skills begin, but also pulling the audience into an imaginative and captivating experience. <Lance Moi En L'air> is choreographed by L'Eolienne(Florence Caillon) with original music by Xavier Dermertiac & Florence Caillon. Supported by Turtle Key Arts.

Supported by

STAFF & CAST

Performer_ Olivia Quayle, Jan Patzke | Choreographer and Music_ Florence Caillon (L'Eolienne)

25min



소리 탐사대 Ear Trumpet

★본 공연은 사전예약공연으로 현장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블더구크 씨어터
Gobbledegook Theatre
영국 UK



들어보세요! 당신이 귀 기울이지 않았던 들을 수 없었던 발밑의 소리들을!

영국에서 온 소리 탐사대 요원들이 땅속에서 흐르고 있는 특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 소리는 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귀중한 보물처럼 바위 속에 갇혀 있다가도 가끔 지면으로 새어 나온다. <소리 탐사대>에 초대된 관객들은 저마다 고른 독특한 모양의 트럼펫으로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소리를 찾아다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고블더구크 씨어터’는 아외의 색다른 장소에서 작품 활동을 선보이며 새로운 크로스 아트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It's about the sound under the ground The noises that you would miss if you didn't listen for them

The sound explorers who have been investigating all over the UK are chasing after the special sound flow found under the ground. The sound of spiritual value that encompasses ancient and modern times is harmonized, trapped in the rocks, and sometimes erupted on the ground. The audience who are invited to <Ear Trumpet> get to pick up beautifully made trumpet and become sound explorers who search for sound under their feet. It is a work for all ages that is made to feel the joy of seeking the secret music flowing in the ground.

‘Gobbledegook Theatre’ is a group that creates new cross-art through their works, and specializes in making works from unusual places in the outdoors.

Supported by

STAFF & CAST

Artistic Director: Lorna Rees

Performer: Lorna Rees, Alastair Gooden, Jonathan Croose, Adele Keeley, Kibong Lee(이기봉), Mina Kweon(권미나)

120min



EAR TRUMPET

10.5 16:00 | 문화비축기(지)(T3 앞마당) Oil Tank Culture Park(T3)

10.6~7 13:00, 16:00 | 문화비축기(지)(T3 앞마당) Oil Tank Culture Park(T3)

*Ear Trumpet is co-commissioned by Without Walls, a consortium of leading UK outdoor arts festivals collaborating to break new ground in the creation of extraordinary outdoor work in the UK and Ageas Salisbury International Festival, Winchester Hat Fair, the Arts by the Sea Festival and Inside Out Dorset. It is supported by Activate Performing Arts and Arts University Bournemouth.

*2017-18 한영 상호문화의례 (UK/Korea 2017-18)의 공식 프로그래밍

*The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is working in collaboration with XTRAX on Platform 4.UK, a programme designed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nd export of UK street arts. Supported by Arts Council England and delivered by XTRAX, this project aims to open up new markets internationally for the best work from UK street artists by creating showcase opportunities in collaboration with strategically significant partners in the UK and overseas.



COOPERATZIA

10.6~7 21:00 | 서울시립미술관(일마당) Seoul Museum of Art

★이동형공연 Promenade Theatre

© Y. Maitreu



© G. BISTAKI

도시의 흔적들 Cooperatzia

G. 비스타키
G. Bistaki
프랑스 France

COOPERATZIA

일상의 오브제를 예술적 상상력의 도구로 승화시키는 유별난 공동체

<도시의 흔적들>은 배우들이 도시를 돌아다니고 그들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과 상호작용하며 진행되는 영동한 서커스 작품이다. 기왓장, 여성용 핸드백 등을 가지고 벌이는 밝고 비현실적인 퍼포먼스는 서울 거리 곳곳에 생소한 흔적들을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프랑스 극단 'G. 비스타키'는 5명의 뛰어난 저글러이자 현대 무용수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공간이 가지는 물리적,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탐구를 바탕으로 연출된 서커스를 선보이며, 신체는 탐구와 표현의 원동력이 된다. ★이 공연은 10명의 시민예술공작단과 함께합니다.

New community created from artistic imagination with daily objet

<Cooperatzia> is an extraordinary circus work that interacts with what's surrounding them. It will catch the eye of both adults and children through funny and unrealistic performance using tile, woman's handbag and etc.

French theater group Le 'G. Bistaki' is made up of 5 outstanding jugglers and contemporary dancers. The group presents the circus, which is based on the phys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space, and the body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exploration and expression.

Supported by



STAFF & CAST

Collective Writing and Direction_ François Juliot, JiveFauray, Sylvain Cousin, Nicanor de Elia, Florent Bergal
Citizen Artists_ Heanu Kang, Sejong Kim, Jinsoo Kim, Jiwon Park, Yeonjoo Shin, Heesung You, Bumku Lee, Sang-a Lee, Hyunju Lee, Minchae Kim(강현우, 김서정, 김진수, 박지원, 신연주, 유희성, 이병구, 이상아, 이현주, 김민채)
Interpreting_ François Juliot, Eric Buron, Sylvain Cousin, Nicanor de Elia, Florent Bergal
Stage Director_ Anne-Claire Pire
Video-Maker_ Guillaume Bautista | Lighting_ Hugo Oudin
Production Manager_ Christelle Jung

70min



불꽃을 따라 SU À FEU

데브루 벨자크
Deabru Beltzak
스페인 Spain



리듬을 따라, 불꽃을 따라

〈불꽃을 따라〉에서는 어반 댄스, 불꽃 그리고 리듬으로 단단히 무장한 캐릭터들이 시끌벅적 도시 공간을 누빈다. 미래에서 시간 여행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에 난 입해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불과 리듬이 가득 찬 축제 공간으로 일상공간을 탈바꿈시킨다.

‘데브루 벨자크’는 이동형 거리 공연 제작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1996년 설립된 단체이다. 프랑스, 독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등 전 세계에서 800회 넘는 공연을 선보였으며 자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Follow the rhythm, follow the fire

Based on urban dance, fire and rhythm, <SU À FEU> explores urban space from a fantastic new angle. In this performance, the characters who seem to come from the future enter the street and initiate spectators to new rituals around the primitive fire. Together with the audience, they transform the streets into a space filled with, attractive, fascinating and magical, rhythm and light!

Originally from the Spanish Basque Country, ‘Deabru Beltzak’ was founded in 1996 with a clear goal of creating itinerant street shows. They have given over 800 performanc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France, Germany, Colombia, Venezuela, Belgium, Brazil, Canada, Luxembourg, Mexico and Switzerland. The group has won a big success not only in their own country, but also overseas.

Supported by   

STAFF & CAST

Actor/Musician: Alain Diez, Cesar Arroyo, Alex Alonso, Kepa Elgoibar, Ruben Sastre, Dario Campos, Oscar Castaño

50min



SU À FEU

10.5 19:00 | 청계천로 Cheonggyecheon-ro

10.6 21:00 | 청계천로 Cheonggyecheon-ro

10.7 19:30 | 청계천로 Cheonggyecheon-ro

10.8 19:00 | 세종대로~서울광장 Sejong-daero~Seoul Plaza

●이동형공간 Broomade Theatre

●첫공연 10.4 16:00, 17:00 서울역광장 두림마포면소 (리듬을 따라)

LOOK LOOK

10.6~7 18:00 | 서울광장 Seoul Plaza

*이동형공연 Promenade Theatre



룩 룩 Look Look

LDP 무용단
Laboratory Dance Project
한국 Korea

LDP
Dancing and Thought

보기와 보여지기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개인의 본질적 정체성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LDP 무용단'은 2001년에 창단되어 지속적인 차별성을 강조한 실험적 도전과 LDP 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심도 있는 예술철학 및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레퍼토리 창작을 선도하며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LDP무용단의 무용수들은 남다른 재능과 끼는 물론,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대중의 신뢰를 쌓아왔다.

Looking and being looked at

How am 'I' shown and how am I seeing?
It throws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an individual's essential identity.

'Laboratory Dance Project' was founded in 2001. With experimental challenges that stresses continuous differentiation, the group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the value of art by leading the creation of repertoire that emphasizes the artistic philosophy and communication. The LDP dancers have built up the trust of the public one step at a time based on their extraordinary talents as well as continuous efforts and sincerity. This Korean dance company's performances are always highly trusted and reputable.

STAFF & CAST

인무, 김동규 | 무용수 류진욱, 천종원, 김성현, 김혁, 윤나라, 임종경, 이정민, 정건, 장지호, 임성백, 김보람, 김수인, 정목이, 이주희, 영지연, 한유주, 이훈 | 사운드디자인 김행민 | 의상 최안숙 | 기획/행정 국지수
Choreography_Dongkyu Kim | Dancer_ Jinwook Ryu, Jongwon Chun, Seunghyun Kim, Hyuk Kang, Nara Yoon, Jongkyung Lim, Jeongmin Lee, Gun Jeong, Jiho Jang, Setbyeol Lim, Boram Kim, Sooin Kim, Rogye Jung, Joohye Lee, Jiyeon Yang, Yoonjoo Hahn, Hong Lee
Sound Design_Hyoungmin Kim | Costume_Insook Choi | Administration_Jisoo Gook

60min



스파이더스 SPIDERS

프로젝트 날다
Project NALDA
한국 Korea



통제된 WEB. 인간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메시지

‘거대하게 펼쳐진 망(WEB)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감정, 기억,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인간적 삶까지도 WEB에 연결한다.’ 점점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만들 필요도 없어지는, 단순한 기계와 달아나는 인간들의 생태를 거미들에 비유해 퍼포먼스로 완성했다.

‘프로젝트 날다’는 2010년에 창단해, 공중 공간에서의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예술, 비예술 장르와 결합하여 공중 퍼포먼스를 개발, 발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컨템포러리 서커스 개발을 위해 국제교류, 창작,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Controlled WEB. The story of humans and the message about our future

‘Humans who are living in a huge WEB, not only information but also personal life such as emotions, memories, and relationships with people, are connected to the WEB.’ The ecology of humans who gradually become like a simple machine, which does not need to think and feel, is compared to spiders and made into a performance.

‘Project Nalda’ was founded in 2010 and it has been developing art contents in the air space. They are developing / presenting air performances in combination with various arts and non-art genres. Since 2015, the group has been carrying out projects such as international exchange, creation and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ircus.

★ 2016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창작지원 선정작

STAFF & CAST

연출_김경록 | 기술감독_송승환 | 무대감독_나찬일 | 음악감독_장일호 | 무대디자인_김준성
무대_손수민, 조윤담 | 의상_김원미 | 배우_정성태, 김재성, 심주영, 김소희, 권태균
Director_ Kyunglok Kim | Technical Director_ Seunghwan Song | Stage Manager_ Chunil Na
Music Director_ Ilho Jang | Stage Designer_ Junsung Kim
Stage Crew_ Sumin Son, Yundam Cho | Costume_ Wonmi Kim
Performer_ Sungtae Jung, Jaesub Kim, Juyoung Shim, Sohee Kim, Taekyun Kwon

40min

SPIDERS

10.7 21:00 | 서울광장(서울도서관 앞) Seoul Plaza
10.8 18:00 | 서울광장(서울도서관 앞) Seoul Plaza



MASSAGER

10.5~6 17:00 | 무교로(서울파이낸스센터 뒤) Mugyo-ro

10.7 16:00 | 무교로(서울파이낸스센터 뒤) Mugyo-ro

10.8 17:00 | 무교로(서울파이낸스센터 뒤) Mugyo-ro



마사지사 Massager

비주얼씨어터 꽃
CCOT
한국 Korea
꽃

종이처럼 부서지기 쉬운 당신..., 당신을 안아주는 시간!

서울의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시민 공동체 퍼포먼스이다. 거리의 마사지사로 육성된 시민 공연자들이 관객을 참여시켜 설치와 퍼포먼스가 통합된 특별한 공연을 진행한다. 우리에게서 태어난 종이인 간들을 통해 인간의 연합함을 마주하고 안아주는 제의적인 예술치유 공연이다.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통합된 시각연극 Visual Theater를 추구하는 공연예술 단체이다. 200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The School of Visual Theater'에 재학 중이던 이철성과 김진영에 의해 창단되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시각예술적 재료와 연극적 재료 그리고 음악적 재료를 통합하여, 삶의 깊이를 탐구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Fragile you... It's time to embrace you!

It is a performance made together with Seoul citizens and visitors. The citizen performers who are fostered as street massagers will engage the audience and perform a special performance combining installation.

'CCOT' is a performing arts group that pursues Visual Theater which integrates visual arts and performing arts. It was founded by Cheolsung Lee and Jinyoung Kim in 2000, when they were attending 'The School of Visual Theater' in Jerusalem, Israel. The group has been activ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y combining visual artistic materials, theatrical materials, and musical materials, the group creates works that explore the depths of life.

*2016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가꿈예술창작지원 선정작

STAFF & CAST

창작/연출_이철성 | 공연자_이철성, 시민예술공작단(김유미, 김일석, 김정윤, 박세민, 백승희, 심해주, 오재현, 이지형)
조연출/오브제_하소정 | 설치_김혜원 | 음악_이정훈
Creator&Director_Cheolsung Lee
Performer_Cheolsung Lee, Youme Kim, Itsk Kim, Jeongyoon Kim, Sein Bak, Seunghee Baek, Hyeju Sim, Chaehyun Oh, Jihyung Lee
Assistant Director&Objects_Sohjeong Ha | Installation_Hyewon Kim | Music_Junghoon Lee

60min



견우와 직녀 GYEONWU AND JIKNYEO

예술무대 산
Art Stage SAN
한국 Korea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아와극 (견우와 직녀)는 대사가 없는 무용음악극으로, 동화 <견우와 직녀>의 기본적인 배경과 인물 설정만을 차용하여 실제 없는 권력자 옥황상제를 시민의 힘으로 쓰러뜨린다는 이야기다. 각각의 인물들은 역활에 맞는 거대한 인형 또는 인형과 배우가 결합한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상징을 가진 대형 오브제와 소품들이 등장한다. 대중 스스로 만든 우상이 때로는 대중들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돌이켜 바꾸는 것도 역시 대중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술무대 산'은 인형이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인형극의 가능성과 문법을 발견하고 실험하는 것을 목표로 창작한 전문예술단체다. 인형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이야기와 시각 효과의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관객에게 즐거움, 감동, 여운을 제공하고 나아가 삶의 회고를 제시한다.

The story of GYEONWU AND JIKNYEO

The outdoor performance <GYEONWU AND JIKNYEO> is a musical dance theatre without words. It is a new story about the power of citizens defeating the immaterial leader 'Okhwang Sangje'. The story uses the basic background and personality setting of a fairytale from Korea, <GYEONWU AND JIKNYEO>. Each person is represented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a huge puppet, or a combination of a puppet and an actor, to suit their roles. Both large and small objects with symbols also appear. The story tells that it is possible that a leader chosen by the public may guide to them to an unwanted way but turning it back and making a change can only be done by the power of the citizens.

'Art Stage SAN' is a professional arts company that aims to discover and test the possibilities and grammar of the puppet show by breathing in lives to the puppets on stage as actors. Through colorful stories and visual effects by using puppets, they provide pleasure, impression, and liveliness to the audience and present the subject of life.

★의정부 예술의 전당 공동제작

STAFF & CAST

프로듀서 오정석 | 작/연출 조현산 | 미술감독 유지연 | 음악감독 및 기타 정재현 | 안무 한승훈
배우 임선영, 설재영, 김다영, 최석원, 김상한, 임필림, 김도윤 | 무용 황승현, 한승훈, 윤득령, 박형재, 박상수, 김민우, 김준기
타악 타악그룹 티안 | 피리 박지혜 | 기류 어영미, 김여영 | 컴퍼니디자이너 주지나 | 국제코디네이터 김민혜
Producer_ Jongsuk Oh | Playwriting/Director_ Hyunsan Jo | Art Director_ Jiyun Ru | Music Director&Guitar_ Jaihan Chung | Choreography_ Seunghun Han | Actor_ Sunyoung Lim, Jaeyoung Sul, Dayoung Kim, Sukone Choi, Sanghwan Kim, Philip Lim, Doyoun Kim | Dacnce_ Seunghyun Hwang, Seunghoon Han, Dukroung Yoon, Hyungchae Park, Sangsu Park, Minwoo Kim, Joonggi Kim | Percussion_ Percussion Group Tian | Flute_ Jihae Park | Planning_ Youngmi Ue, Yeoung Kim | Company Design_ Jina Ju | International Coordinator_ Minha Kang



GYEONWU AND JIKNYEO

10.7 15:30, 20:00 | 서울광장무대 Seoul Plaza

10.8 13:00 | 서울광장무대 Seoul Plazar

10.5~7 19:00

단디우화
Dandi Fable

창작중심 단디
Creative Dandi
한국 Korea

‘애벌레’들이 성충이 되어 날아가는 희망지 내용을 담은 공예이다. 유충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숨기고, 활동하고, 그들만의 행복함, 즐거움 등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자연이 주는 시련, 아픔,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 유충들은 끝내 이를 이겨내고 성충이 되어 날아간다.

‘창작중심 단디’는 버티컬 퍼포먼스와 거리예술에 특화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간이 하늘을 날고 자 하는 꿈과 새로운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맑은 하늘 위에 수를 놓는 단체이다.

It is a performance filled with hopeful content that features caterpillars flying away as adults. Larvae hide their bodies to music, act and express their own happiness and joy. However, they are also faced with hardship, pain, and sufferings from the nature. Finally, it ends with the statement that they overcome all of these adversities and each flies as an adult.

'Creative Dandi' is working on vertical performance and street art. It is a group that spreads out over the sky the dream of humans to fly over the sky and desire to go to a new world.

Supported by 한국현대미술관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2014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공동제작 프로그램

STAFF & CAST

연출 황성택 | 드라마틱 임형수 | 배우 안익숙, 김지정, 강미리, 김동희

음악 김정룡 | 무대 오태춘 | 조명 유성희 | 무대감독 권석린

Director Sungtak Hwang | **Dramaturgy** Hyongsu Lim

Performer Euisuk Ahn, Jijung Kim, Miree Kang, Donghui Kim

Sound Jeongryong Kim | **Stage** Taehun Oh | **Lighting** Sunghi You | **Stage Director** Seokrin Kwon

30min



나, 봉앤줄 I, Bongnjoule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
Bongnjoule
한국 Korea

한 남자가 긴 봉을 어깨에 메고 자신의 짐을 실은 수레를 끌며 걸어온다

〈나, 봉앤줄〉은 봉(차이니스 폴)과 줄(타이트와이어)의 서커스 기예와 가야금, 대금연주, 소리의 전통연희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떨어질 걸 알면서도 봉과 줄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엿보고자 한다.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은 2015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수료한 ‘안재현’이 창단했다. 화려한 서커스 기예 이면에 인간의 나약한 부분에 주목하고 봉(Chinese Pole)과 줄(Tight Wire)을 중심으로 다른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동시대-서커스(Contemporary-Circus) 창작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A man has a long pole on his shoulder and pulls a cart that is loaded with his luggage

It is a combination of a circus performance of a bar (Chinese pole) and a wire (tight wire) with traditional sound of Korean instruments gayageum and Daegeum playing. With the image of a man constantly climbing up the pole and wire while recognizing he will fall to the ground, we look into ourselves who are living today for an unclear tomorrow.

‘Bongnjoule’ is a circus creating group which was founded in 2015 by ‘Jaehyun Ahn’, who completed the circus specialist training course at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The group is focusing on the weakside of the human being behind colorful and brilliant circus technique while aiming to create contemporary circus through the combination of other genres centered around Chinese pole and tight wire.

STAFF & CAST

연출/기예 안재현 | 가야금/소리 이슬이 | 대금/소리 조원석

무대감독 신광환 | 조연출 남기현 | 영상/음향 김민선

Director/Performer Jaehyun Ahn | Sori/Gayageum Suly Lee | Daegeum/Sori Wonsuck Jo

Stage Director Janghwan Shin | Sub Director Gihun Nam | Video/Sound Minseon Kim

30min

I, BONGNJOULE

10.5 19:00 | 무교로(시작지점 무교동 사거리) Mugyo-ro

10.6 18:00 | 무교로(시작지점 무교동 사거리) Mugyo-ro

*이동형공연 Promenade Theatre



GRANDMA'S CART

10.6 17:30 | 청계광장(시작지점: 청계광장 분수대) Cheonggye Plaza

10.7 17:30 | 무교로(시작지점: 서울파이낸스센터 뒤) Mugyo-ro

10.8 18:00 | 청계광장(시작지점: 청계광장 분수대) Cheonggye Plaza

*이동형공연 Promenade Theatre



고물수레 Grandma's Cart

마린보이
Marineboy
한국 Korea



낯은 수레 하나, 도심 한복판에서 당신을 만난다

분주한 걸음이 이어지는 도심, 폐지 줍는 할머니가 나타난다. 할머니는 높은 빌딩 숲과 바쁜 도시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다소 허름하다. <고물수레>는 배우의 연기가 아니라 인형을 이용하여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려내고, 일상 공간인 거리에서 독특한 경험을 마주하게 한다.

'마린보이'는 서커스 기반의 광대로, 저글링, 코미디, 마임, 서커스 스킵 등이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03년 거리에서 관객들을 만난 이래로, 직접 제작한 소품들을 공연에 활용하는 주요작 <나 홀로 서커스> 등으로 활동해 왔으며 <맨인화이트> <퍼펫 서커스> 등을 제작·연출했고, <유랑축제>의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An old cart, meeting you in the heart of the city

In a busy city, an old lady shows up who picks up discarded paper. Unlike the tall building forests and busy urban people, the old lady looks shabby. In this work, the old lady is portrayed by a puppet instead of an actress and the audience gets to face a unique experience in the everyday space of the street.

'Marineboy' is a circus-based clown featuring juggling, comedy, mime and circus skills. Since meeting the audience in 2003, he has been working using the self made props in his major work <Circus Alone> and more. He has also produced and directed <Man in White> <Puppet Circus> and participated as a member of <Yurang Festival>

*2016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창작지원 선정작

STAFF & CAST

조연출, 이성형 | 제작, 마린보이 | 기획, 문화이음이 풀
마스크제작, 임선영 | 제작지원, 옥종근 | 음향오퍼레이터, 조혜진
홍보디자인, 우석훈 | 촬영, GoGuMa
Director, Sunghyung Lee | Production, Marineboy | Producer, GGOL Culture
Mask Maker, Sunyoung Lim | Production Advice, Jonggeun Ok | Sound Operator, Hyejin Cho
PR Design, Seokhoon Woo | Video, GoGuMa

50min



행복의 나라로 Happy'ness

곧스댄스컴퍼니
No-W-Here Dance Company
한국 Korea

알면서도 찾기 못하는 그것을 찾는 일상의 흥겨운 춤과 소리

우리는 늘 찾고 찾고 또 찾는다.

우리가 찾고 있는 곳은 그곳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곳에 있을까?

〈행복의 나라로〉는 한국적인 움직임, 노래, 소리, 타악과 관객들의 참여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모두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곧스 댄스컴퍼니’는 2012년 본격적으로 거리예술을 시작한 단체이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몸짓, 순간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아무렇게나 펼쳐진 바닥과 벽, 모든 것이 무대가 되고 장치가 된다. 유흥적이고 돌발적일 수 있는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형지물에 대한 끊임없는 리서치를 통해 우리의 몸과 그 곳의 에너지를 호흡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곧스 댄스컴퍼니’는 ‘곧’ 다가올 그 ‘곳’의 이야기다.

The joyful dance and sounds of everyday life looking for something that we know it, but can not find

We're always looking for it again and again.

Is that where we're looking for? Will there be what we want?

‘Happy'ness’ is a work that can give a message of new energy and hope to all of us by combining the Korean movement, various traditional music (song, sound, percussion) and audience participation.

‘No-W-Here Dance Company’ started street art career in 2012. Movement of passers-by, momentary sound, unfolded floor and walls, everything becomes the stage and the device. The performance is intended to help the audience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that can be fluid and sudden, and through constant research on the terrain features, it will be possible to look into the society we live in while breathing energy from our body and its place. ‘No-W-Here Dance Company’ is the story about the future place that is soon to be here.

STAFF & CAST

안무/연출 박재영 | 무용수 김연희, 이지현, 박재영 외 1명

음악/연주 여성룡, 최민원 | 매니저 조명숙

Choreography/Director Jaeyoung Park | Performer Yeunhwa Kim, Jihyun Lee, 1 other than Jaeyoung Park

Musician Seongryong Yeo, Inhwon Choi | Manager Myoungok Jo

35min



HAPPY'NESS

10.6~7 18:00 | 서울로7017(로슬 및 남측광장) Seoulo7017

*이동형공연 Promenade Theatre

THE TIGER ROCK OF INWANG MOUNTAIN

10.5~6 13:00, 16:00 | 청계천변(모천교와 평통교 사이) Cheonggyecheon-ro



인왕산 호랑이 바위 The Tiger Rock of Inwang mountain

극단 하당세
HADDANGSE
한국 Korea
HADDANGSE

설화로 만들어 내는 우리 동네 이야기

한국 호랑이를 소재로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는 한국 고유 설화의 재미와 신비성을 알리고, 야외 다중집합장소에서 관객의 상상력을 이용한 화합과 소통에 의미를 강조한 작품이다.

‘극단 하당세’는 ‘하늘부터 땅 끝까지 세계 간다’는 정신으로 작품을 만드는 젊은 극단이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고, 세상을 살펴본다’라는 뜻의 ‘극단 하당세’는 ‘맨몸’으로 연극에 임하는 용기와, 땀과 창의성의 힘을 알고 있는 단체다.

The narrative story of our town

<the Tiger Rock of Inwang Mountain> tells the excitement and mystery of Korea's unique tale that has been constantly handed down about the Korean tiger. It is a work emphasizing the meaning of harmony and communication by using the imagination of the audience in the outdoor multi-setting space.

‘HADDANGSE’ is a young theater group that makes works under the spirit of going hard from the heaven to the end of the earth. ‘HADDANGSE’ means ‘look up to the sky, look down on the earth, look at the world’. It is a theatrical company that understands the power of courage to act in theater as well as the power of sweat and creativity.

*2016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창작지원 선정작

STAFF & CAST

연출_윤시중 | 극작_윤조병 | 오브제디자인_김유정 | 음악감독_정규하 | 의상디자인_고은별
조연출_권재인 | 기획_문숙경 | 무대감독_구지혜 | 진행_오에바다, 이은주
악사_이수현 | 배우_김윤미, 김지환, 김지혜, 신민규, 안소정, 김주일, 김재연, 이주광
Director_Sijoong Yoon | Playwriting_Jobyung Yoon | Objet Design_Yujung Kim | Music Director_Gyuhja Jung
Costume Designer_Eunbyeol Go | Assistant Director_Jane Kwon | Planning_Sukkyung Moon
Stage Manager_Jahwi Gu | Staff_Ebada O, Eunju Lee | Musician_Suhyeon Lee
Performer_Yunmi Kim, Jihwan Kim, Jihye Kim, Mingyu Sin, Sojung An, Joil Kim, Chaeyeon Kim, Jugwang Lee

45min



나들이 Picnic

노마딕 씨어터 나들이
Nomardic Theatre Nadi
한국 Korea



우리 모두 한세상 나들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닌가?!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며 겁내고 있던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먼저 죽은 할아버지가 저세상에서 나타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요양원을 떠나고, 뒤늦게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할머니를 찾는다. 고개 넘어, 깊은 강을 건너, 높은 산을 넘는 여정. 저승사자와 노부부의 숨바꼭질이 더해진 저승으로 가는 유쾌한 소풍 길이 펼쳐진다.

'노마딕 씨어터 나들이'는 "배우의 몸, 짓, 소리 그리고 오브제 연기를 도구로 공연나들이 가져"를 모토로 공연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삶에 유쾌한 경험을 안겨주고 그들의 삶이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공연 창작 집단이다.

Are we all coming to and leaving this life as one picnic?!

An old man who had died appears in the world in order to relieve his wife who is lonely and is afraid of facing 'death'. The old man takes his wife away from the nursing home and later on, the messengers of death appear to look for the old lady. Crossing a pass, a deep river, the journey through the high mountain adds an atmosphere of hide and seek which gives a pleasant mood to the last journey.

'Nomardic Theatre Nadi's motto is "Let's go out for the picnic of show with actor's body, movement, sound and object as tools!". They give a pleasant life experience to the audience through their performance and these performing artists are hoping that lives of people to be transformed into more valuable and happy ones.

* 2016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축제센터 거리예술창작지원 선정작

STAFF & CAST

프로듀서_심원주 | 연출_강우정 | 조연출_임석현 | 작_조정일 | 배우_김두영, 강우정
연기지도_윤진성 | 작·편곡_박미향 | 무대디자인_강정화 | 의상디자인_황수물 | 사진/영상_김한태 | 홍보물 디자인_김은정
Producer_Hyunju Sim | Director_Woojung Kang | Assistant Director_Sukhyun Yim | Playwriting_Jungil Jo
Performer_Duyoung Kim, Woojung Kang | Acting Director_Jinsung Yun | Composition_Mihyang Park
Stage Design_Junghwa Kang | Costume Design_Supul Hwang | Photographic Image_Hwantaek Kim
Graphic Designer_Eunjeong Kim

40min



PICNIC

10.5~7 17:00

서울시립미술관(열매당) Seoul Museum of Art

RING THE BELL

10.6 20:00 | 무교로(시작지점_버거킹 앞) Mugyo-ro

10.7 19:00 | 무교로(시작지점_버거킹 앞) Mugyo-ro

*이동장공연 Promenade Theatre



링더벨 Ring the Bell

조성아
sungah CHO
한국 Korea

잊었던, 잊히고 있는, 잊힐 수도 있는,
그 때, 그 곳에, 당신을 기억하는 이야기

잊힐과 무관심의 상징이 되어버린 공중전화는 기억과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 기억 속에만 머무를 수도 있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꼬집어낸다. 벨이 울리면, 현실 속 비현실, 비현실 속 현실이 뒤섞인 차원의 이동이 시작된다.

'조성아'는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관심과 실험을 기반으로 형식과 표현에 대한 경계가 없는 창작 활동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Forgotten, forgetting and might be forgotten...
a story that remembers you, there and then**

Telephone box, which has become a symbol of forgetfulness and indifference, becomes a link between memory and communication, and draws out stories about the forgotten things that may remain in memory. When the phone rings, unreal in reality and real in unreality are mixed and begin their movement.

Based on interest and experiments on various spaces, 'sungah CHO' has a direction for creative activities that have no boundaries for form and expression.

*2016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창작지원 신청작

STAFF & CAST

연출_ 조성아 | 배우_ 유성진, 강말금, 홍철희 | 무대디자인_ 박동기 | 사운드디자인_ 전광표

사진_ 권장혁 | 영상_ 손수진 | 그래픽디자인_ 김보혜 | 무대제작소_ 수무대

사운드디자인 어시스턴트_ 이민정 | 무대감독_ 박정민

Director_ Sungah Cho | Performer_ Seongjin Yu, Malgeum Kang, Chulhee Hong

Stage Design_ Dongki Park | Sound Design_ Kwangpyo Jeon

Photograph_ Janghyuk Kwon | Video_ Soojin Son | Graphic Design_ Bohui Kim | Stage Production_ Scene Shop SU

Sound Design Assistant_ Minjung Lee | Stage Director_ Jungmin Park

35min



장소체험기록공연 [사적인 문장]

Space Experience Recording Theatre [A Private Sentence]

*본 공연은 사전예약공연으로 현장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방구밴드
Dabangguband
한국 Korea

당신의 시간을 길 위에 기록하다

문자로 표기되지 않은 소소한 장소를 체험하고 그 시간의 경험으로 획득한 장소감을 개인의 역사로 기록한다. 늘 지나며 바라보기만 했던 장소를 관람, 참여, 체험 등의 형태로 더욱 가깝게 만나고 역사의 시간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 개인의 시간을 기록한다. 이 기록은 고유하며 주제적이고 독립적인 '사적인 문장'이 된다. 이 사적인 문장은 역사적 기록처럼 가시화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소리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과 더불어 우리는 이 장소에서 무수히 많은 개인의 역사를 감각하게 된다.

'다방구 밴드'는 4인의 아티스트가 모여 '관찰은' 프로젝트를 도모하고 예술 속에서 삶을 즐기며,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협업 모임이다. 2014년 결성되어 전시퍼포먼스 <다방구(2015)>, 아티스트자생프로젝트 <우주바이미(2015)>, 이구미언니(마을결혼식(2016))을 진행한 바 있으며 <우주바이미(2016)>를 출판하였고, 2017년 현재 서울예술치유허브에 입주해 사회의 예술 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예술 치유를 실행하고 있다.

Your time is recorded on the road

Experience a small place that is not written anywhere, and the sense of the place acquired by the experience of that time is recorded as the personal history. In the form of sightseeing,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etc, we become closer to the place that we have always passed by and each records the time of the individual together with the time of history. Such record becomes a unique, subjective and independent 'private sentence'. This sentence is not as visible as the historical record, but it exists as an invisible sound. Along with this experience, we feel the history of countless individuals in this place.

'Dabangguband' is a collaborative gathering where four artists come together to plan a 'decent' project, enjoy life in the arts, and prove that they are alive. Since it was founded in 2014, they have conducted different projects such as the exhibition performance <Daebangu (2015)>, the artist's self-project <Space by Me (2015)> and Igumi sister <Village Wedding (2016)>. They also published the publication <Cosmic By-Book (2016)> and since they moved into the Seoul Art Therapy Hub in 2017, they have actively practicing art intervention in society and practicing art healing.

*장소체험기록공연 [사적인 문장]은 2016 청동극장 돌담길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제작되었습니다.

STAFF & CAST

연출_윤해진 | 배우_김혜원, 윤해진, 한유미, 이한배, 손재익, 이연우, 박세원, 이장순, 조예림, 조정호 외
공간_송아름 | 사운드_백인석, 서희숙 | 의상_안혜은 | 오보제 | 김혜원 | 음악감독_함은숙 | 코디네이터_김진이
Director_ MooAa Yoon | Performer_ Hyeon Kim, Hyejin Yoon, Yunmi Han, Hyunbae Lee, Jaek Son, Yoonwoo Lee, Sewon Park, Jangsun Lee, Yelim Jo, Jangho Jo

Space Design_ Ahreum Song | Sound Design_ Insung Beck, Heesuk Seo | Costume Design_ Haeun An
Objet Design_ Hyeon Kim | Choreography_ Eunsook Yang | Coordinator_ Jini Kim

120min



SPACE EXPERIENCE RECORDING THEATRE

[A PRIVATE SENTENCE]

10.6-7 15:03, 15:43, 16:23 | 만리동 인근 Malti-dong

*이동형공연 Promenade Theatre



CAMPING THEATRE; THE SPACEMAN

10.6~7 22:00 | 서울광장(천도광장) Seoul Plaza



캠핑연극 우주인 Camping Theatre; the Spaceman

아해프로젝트
AH-HAE Project
한국 Korea



*본 공연은 사전예약공연으로 현장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낮선 곳에서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보내는 세 남자의 이야기

현실에선 소심하고, 불안하고, 허약한 아재들일뿐이지만, 여전히 우주인이길 꿈꾸는 그들과 함께 텐트에 누워 하룻밤을 보내다, 콘트라베이스와 아프리카 퍼커션의 라이브 연주가 흐르고, 파워풀한 액션, 춤과 노래가 폭발하는 유쾌한 다투극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아해프로젝트'는 기매리 연출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현재는 장소 특정형, 관객 참여형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을 통한 시각적 이미지의 구축이나 라이브로 연주되는 음악에서 비롯되는 청각적 자극을 주된 표현양식으로 삼고 있다.

A story of three men who meet and spend a night in a strange place

We spend a night in a tent with middle aged men who are weak in reality, but still dream of being astronauts. While the live performance of African percussion and contra bass is going on, a joyful fight unfolds in front of us, which is an explosion of powerful action, dancing and singing.

'AH-HAE Project' is a project group composed mainly of Geemaelee production and collaborating with artists in various field. At present, the group is concentrating on the work of site-specific type and audience participation type, and the visual expression through the movement of the body and the auditory stimulation from the music played live are their main expression style.

STAFF & CAST

연출_기매리 | 배우_권영지, 김태훈, 홍익준, 남유진 | 콘트라 베이스_동희 | 아프리카 퍼커션_해 등
작_오세혁 | 조명_곽태준 | 음악_김용화 | 움직임_안미경 | 무술_이태호 | 외상_신주환 | 분장_조은혜 | 무대감독_조성현
Director_Geemaelee | Performer_Youngji Kwon, Taehoon Kim, Euijun Hong, Yujin Nam
Contrabass_Donghee | African Percussion_Haedong | Playwriting_Sehyuk Oh | Lighting_Taejune Kwak
Music/Sound_Yonghwa Kim | Choreography_Mikyung An | Martial Arts_Taeho Lee
Costume_Juhwan Shin | Make Up_Eunhye Jo | Stage Manager_Sunghyun Cho

70min



잡온론 Job on Loan

우주마인드프로젝트
Would You Mind Project
한국 Korea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배우+알바+육아 부부의 생활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치열한 생활. 돈을 벌면서도 빚을 낼 수밖에 없고, 다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서민들의 삶. 그럼에도 꿈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다.

‘우주마인드프로젝트(Would You Mind Project)’는 탈극장 연극을 지향하는 단체다. 자기서사(Self-Narrate)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연극을 창작하고 장소에 따라 맞춤형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The life story of a married couple(handling three jobs: actor+part timer+child care) living in capitalist society

A fierce life living as a temporary worker.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have to take out a loan while earning money and have to make more money to pay back their debts again. Even so, the couple in this story tries hard not to lose their dreams.

‘Would You Mind Project’ is a group that aims at out of theater play. Based on self-narrate, the group creates documentary plays and meets the audience with personalized performances according to the venue.

STAFF & CAST

작/연출_김승연, 신문영 | 배우_김승연, 신문영 | 공간창작_조성아 | 홍보/기획_나희경 | 그래픽_황가람
Director_ Seungeon Kim, Moonyoung Shin | Performer_ Seungeon Kim, Moonyoung Shin
Space Creator_ Sungah Cho | Producer_ Huigyeong Na | Graphic_ Karim Hwang

50min



JOB ON LOAN

10.5, 10.7 17:30

서울광장(서울도서관 뒤) Seoul Plaza

A MUSICAL SUPER STRENGTH SHOW

10.5 14:00, 17:00 |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음악차력극 굿차 A Musical Super Strength Show

정기악회
Jeong Ga Ak Hoe
한국 Korea



굿과 차력이 만났다!! 가장 한국적인 거리공연 음악차력극 <굿차>

음악차력극 <굿차>는 황해도 소리꾼 채녀와 전라도 차력사 종가의 배꼽 빠지면서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이다. 신기방기 유쾌살벌한 '동당애 차력단'과 전국을 유랑하며 노래하는 유랑악단 '악단광칠이' 거리 위에서 만들어 내는 한국적인 음악차력극이다.

'정기악회'는 2000년에 창단된 전문국악단체다. 가곡, 줄풍류,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바탕으로 하여 국악의 서양화가 아닌 모방적인 대화(modernization)를 지향한다. '국악의 발을 일으키는 건강한 농부'를 비전으로, 건강한 예술가가 길라낸 싱싱한 예술적 산물로 동시대와 호흡하고자 한다. 극단 동당애는 어떻게 하면 더 당기며 잘 놀까를 고민한다. 세상 모든 이의 삶과 만나 놀며, 세상 중심에서 비껴나간 삶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악단 광칠'은 광복 70주년광칠에 결성된 밴드로 1940년대 유랑악단 콘셉트로 거리를 다니며 공연한다. 북한 지역의 노래와 굿 음악을 소재로 하나 힘의 진정한 광복을 노래하는 국악 밴드다.

Exorcism and super strength meet!! The most Korean street performance <A Musical Super Strength Show>

It is a hilarious yet heartbreaking love story of a lady singer from Hwanghaedo and a man with super strength from Jeonlodo. This is the most Korean street musical theatre created by 'Dungdangae', a fascinating super strength group and 'the band gwangchil' that travels and sings all over the country.

Established in 2000, 'Jeong Ga Ak Hoe' is a professional Korean music group. It aims at modernization instead of westernization of Korean classical music based on various genres such as vocal, string ensemble, pansori, and folk song. 'A healthy farmer who plows the fiel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s their vision, they hope to breathe with their contemporary sharing the fresh artistic product grown by healthy artists. 'DDP Theater Group' always concerns about how to play well. They meet and play with every person they meet in the world and speak confidently about the lives that have fallen out of the center of the world. 'Gwangchil band' was established on the 7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of Korea. In the 1940s, They performed on the streets with the concept of the 40's wandering band. It is a Korean music band singing the true liberation of Korea with the song and exorcist music of North Korea.

*공동제작 : 극단 동당애, 악단 광칠

STAFF & CAST

작 오세혁 | 연출 오세혁, 김나루 | 예술감독 천재현 | 음악감독 김현수, 이항희 | 배우 김광영(광웅), 심원(차력단), 이순만(차력단) | 소리 방초롱(이야기꾼), 왕희림(월선), 안민영(차력단) | 악사 김현수(대금), 이항희(피리, 생황), 박해림(이성), 원인동(마루(가야금)), 전현준(타악1), 선우진영(타악2) | 율량감독 정세음(셀로판사운드) | 스태프 문화상인 보부

Playwriting Sehyuk Oh | Director Sehyuk Oh, Naru Kang | Art Director Jahyun Chun | Music Director Hyunsoo Kim, Hyanghee Lee | Performer Gwangyong Kim, Wan Sim, Sunman Lee | Singer Chorong Bang, Heerim Wang, Myoung An | Musician Hyunsoo Kim(Dageum) Hyanghee Lee(Piri, Saenghwang), Hyerim Park(Ajaeng), Meondongmaru Eon(Gayageum), Hyunjun Chun(Percussion), Jinyoung Sunwool(Percussion) | Sound Engineer Saerom Jeong(Cellophane Sound) | Staff Production agency B0B00



트랜스포밍 서울 Transforming Seoul

예술불꽃 화(花,火)랑
HWARANG Art Pyrotechnics
한국 Korea



뜨겁게 타올라 변형될 이 곳, To be transformed...!

〈트랜스포밍 서울〉은 불의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익숙한 공간을 설치미술과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새롭게 변형시키는 공연이다. 공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불기둥과 울려 퍼지는 다양한 리듬은 장소의 현실성, 공간성을 초월하며 관객들을 판타지 세계로 이끈다.

‘예술불꽃 화랑’은 불과 불꽃이 가지는 무수한 상징성을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다양하게 창작하고자 한다.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통해 불과 불꽃이 하나의 공연예술 장르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This place, where it's going to become hot and burned. To be transformed...!

It is a work that transforms the appearance of everyday familiar space into a new place through visual, auditory and sensory experiences of fire. This work takes the form between installation art and performance. The various rhythms that resonate with the gigantic pillar of fire overwhelm the space and go into the fantasy beyond reality.

‘HWARANG Art Pyrotechnics’ tries to create various works on fire and flame symbols with excellent artistry. Through a new type of performance, they are hoping that fire and flame will be recognized as a performing arts genre.

*무선 화염장비 기술지원 :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단편'

STAFF & CAST

연출_곽창석 | 불/불꽃 디자인_고지욱 | 기술운영_김태운 | 공간디자인_최석준 | 음직임(무용)_김지원
스태프_이종병, 김철래, 임재형, 김범, 오세철
Director_Changseok Kwak | Pyro Design_Jiwook Ko | Pyro Tech Manage_Taewoon Kim
Space Design_Seokjung Choi | Movement_Jiwon Kim
Staff_Jongbong Lee, Chulrae Kim, Jaehyung Lim, Bum Kim, Sechul Oh

30min

TRANSFORMING SEOUL

10.8 20:00 | 서울광장(북면) Seoul Plaza



FLY UP

10.6 15:0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10.7 14:3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플라이 업 Fly up

갬블러크루
Gamblerz crew
한국 Korea



중력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다

<플라이 업>은 갬블러크루가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대년간 우승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나로 응축시킨 화려한 정통 비보이 퍼포먼스이다. 갬블러크루가 세계 각지에서 선보였던 다양한 비보이 스킬과 노하우를 서울 거리 위에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서울시 대표 B-boy단 '갬블러크루'는 세계 5대 대회 중 가장 큰 독일 "Battle of the year"에서 대한민국 유일인 2회 우승, 대한민국 최초 비보이 중주국 미국에서 미국 팀을 배틀 상대로 우승하는 등 청단 15년 동안 세계 40여 개 대회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수준의 B-boy 댄서들로 구성된 팀이다.

Fly up to the sky with a movement that refuses gravity

The <Fly up> of the group 'Gamblerz crew' is a work that combines various performances that have won in the World B-boy competition in the past years. It is the most colorful authentic b-boying performance that enables the audience to see Gamblerz crew's b-boying skills and know-how that have made them perform actively for 15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Gamblerz crew' is the representative group of Seoul city and it is the only B-boy group in Korea to win two times in the biggest competition "Battle of the year" held in Germany. 'Gamblerz crew' is a team composed of world-class B-boy dancers, who have won the world championship in about 40 competitions over the 15 years since their establishment. It is the first B-Boy team to win the battle against the US team in the US, the origin of B-boy dance.

STAFF & CAST

공동안무 및 연출: 갬블러크루

출연: 박지훈, 신규상, 장수용, 손석진, 홍성진, 성승용, 최동욱, 김기수, 홍성식, 임석용

Director: Gamblerz crew

Dancer: Still, Bruce Lee, Hound, Moai, Pop, Tazo, Rush, Rocket, Noodle, Zesty

30min



들리는 몸 Sounding Body

드리프터즈크루
Drifterz crew
한국 Korea



모든 음악의 시작인 리듬(비트)과, 모든 춤의 시작인 몸(움직임)의 변주곡

우리의 몸은 리듬을 가지고 살아간다. 심장박동에서 시작된 태초의 리듬은 인간을 살아있게 하고 춤추게 한다. 가장 원초적인 리듬에서부터 다양한 리듬의 변주를 품은 드럼과, 브레이크 댄서들만이 가진 역동성이 때로는 다이내믹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변주되어 하나로 어우러진다. <들리는 몸>은 리듬과 몸, 이 두 매체의 대화이자 사건 그리고 게임이라 할 수 있다.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들리는 몸>은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소리 속 리듬을 찾아내 브레이크 댄서만이 가진 몸의 언어로 반증하고 변주하여 드러내려는 작업 또는 실험이다.

서울시 대표 B-boy단 '드리프터즈크루'는 매년 세계 각국의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1vs1 대회인 "Red Bull BC One World Final" 1위 등 2003년 창단 이래 각종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으며, 국·내외 방송, 영화, 광고까지 두루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력 있는 팀이다.

The rhythm(beat), which is the beginning of all music, and the variation of the body(movement), that is the beginning of all dancing

Our bodies live with rhythm inside. Beginning from a heartbeat, the rhythm makes human beings alive and dancing. From the most basic rhythm to the variation of different rhythms, the dynamics of the drums and the break dancers are combined into one to bring a performance that is sometimes dynamic and other times delicate. The <Sounding Body> work can be called the dialogue, event and game between the two media: body and rhythm. The <Sounding Body> which takes place on the street is a work or experiment by break dancers who try to find and express rhythm in every sound that we recognize or can not recognize, with their body language in variations.

'Drifterz crew' has won major prizes including the 1st prize in "Red Bull BC One World Final" which is held every year in a major city throughout the world. Since their foundation in 2003, they have swept the championship in major competitions. On top of this, they are expanding their career in broadcasting, film and advertising as well.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작품제작 지원

STAFF & CAST

협력연출 및 안무 류정현, 드리프터즈크루 | 연주 송재열, 최규철 | 그래픽터 어운정
댄서 김대현, 신종호, 산평현, 박원빈, 임준배, 손문, 한상호, 임한진, 장성우, 강유성, 연철민
Director_Ryu Janghyun, Drifterz crew | Drummer_Killasong, Camelo | Graffiti_Pyro
Dancer_Ducky, Trickx, Rookie, Jazz Bear, Neepy, Moony, Shorty Force, Uno, Moleroc, Dile, Meteor, Circle

30min

SOUNDING BODY

10.5~6 13:00 | 서울시립미술관(알마당) Seoul Museum of Art

*공연시작 전 덕수궁돌담길에서 사진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DREAM OF INVISIBLES

10.8 14:00, 17:00 | 세종대로 Sejong-daero



잉여의 꿈 Dream of Invisibles

갬블러크루
Gamblerz crew
한국 Korea



남을 잉剩, 남을 여餘. 꿈이 있지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꿈은 있습니다. 이들도 그렇습니다. 그 꿈들은 작을 수도 있고 혹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꿈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때도 있고,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기도 하며, 가끔은 다투기도 하지만 항상 가슴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 순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힘껏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표 B-boy단 '갬블러크루'는 세계 5대 대회 중 가장 큰 독일 'Battle of the year'에서 대한민국 유일한 2회 우승, 대한민국 최초 비보이 종주국 미국에서 미국 팀을 배틀 상대로 우승하는 등 창단 15년 동안 세계 40여 개 대회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수준의 B-boy 댄서들로 구성된 팀이다. 그 중에서도 본 작품의 실연자들(박지훈, 신규상, 장수웅)은 기존 다이나믹한 분위기와 표현한 비보잉에서 벗어나 극히 상반된 움직임과 분위기의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해보자는 목표로 공동창작을 통해 〈잉여의 꿈〉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2016년 SPAF 서울댄스컬렉션 본선에서 우수작 및 해외커넥션 사업에 선정돼 비보잉의 예술작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Surplus 'Ying', surplus 'Yeo' There are useless people even though they have dreams

Everyone has a dream and they are no exception. Those dreams may be small, or they may be dreams that can not be fulfilled. They are heading towards their dreams in different directions, but the world does not need them. They sometimes rely on each other, look at each other, sometimes disagree, but always cheer for each other in their hearts. They are struggling every moment in their own way.

'Gamblerz crew' is the representative group of Seoul city and it is the only B-boy group in Korea to win two times in the biggest competition "Battle of the year" held in Germany. 'Gamblerz crew' is a team composed of world-class B-boy dancers, who have won the world championship in about 40 competitions over the 15 years since their establishment. It is the first B-Boy team to win the battle against the US team in the US, the origin of B-boy dance. Among them, the performers of this work(Still, Bruce Lee, Hound) have decided to cooperate under the goal of conveying 'story' and 'emotion' and made this work <Dream of Invisibles>, which was selected as an excellent work and also as an overseas connection project at the SPAF Seoul Dance Collection Competition in 2016. Such recognition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B-boying as an artwork.

STAFF & CAST

공동안무/출연 박지훈, 신규상, 장수웅 | 무대감독 임영우
Director/Performer Still, Bruce Lee, Hound | Stage Manager Youngwoo Lim

60min



저글링 옴니버스 Juggling Omnibus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한국 Korea



다섯 명의 저글러가 제시하는 컨템포러리 서커스의 새로운 길

디아블로, 마네킹, 탁구공, 큐브, 포이, 크리스탈 볼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의 저글링. 다섯 명의 저글러들은 단순한 기교만을 전시키는 전통적인 서커스의 문법을 넘어서, 서커스가 가진 예술적 잠재성과 다른 장르와의 결합 가능성을 탐구한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컨템포러리 서커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터 연구, 창작, 발표까지 작품 제작의 전 과정을 연간 지원하는 ‘서커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워크숍과 오디션 거쳐 김영주, 김중환, 이영호, 이준상, 한혜민이 참가자로 선발되었다.

A new way of contemporary circus suggested by five jugglers

The five different colors of juggling us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diablo, mannequin, table tennis ball, cube, foil, crystal ball and etc. The five jugglers explore the artistic potential of the circus and its potential to combine with other genres beyond the traditional circus grammar, which is merely exhibiting arts.

‘Seoul Street Art Creation Center’ runs a program that supports the whole process of production from education to research, creation, and presentation to cultivate contemporary circus professionals. Through the workshop and audition in 2017, Youngju Kim, Jonghwan Kim, Youngho Lee, Junsang Lee and Hyemin Ha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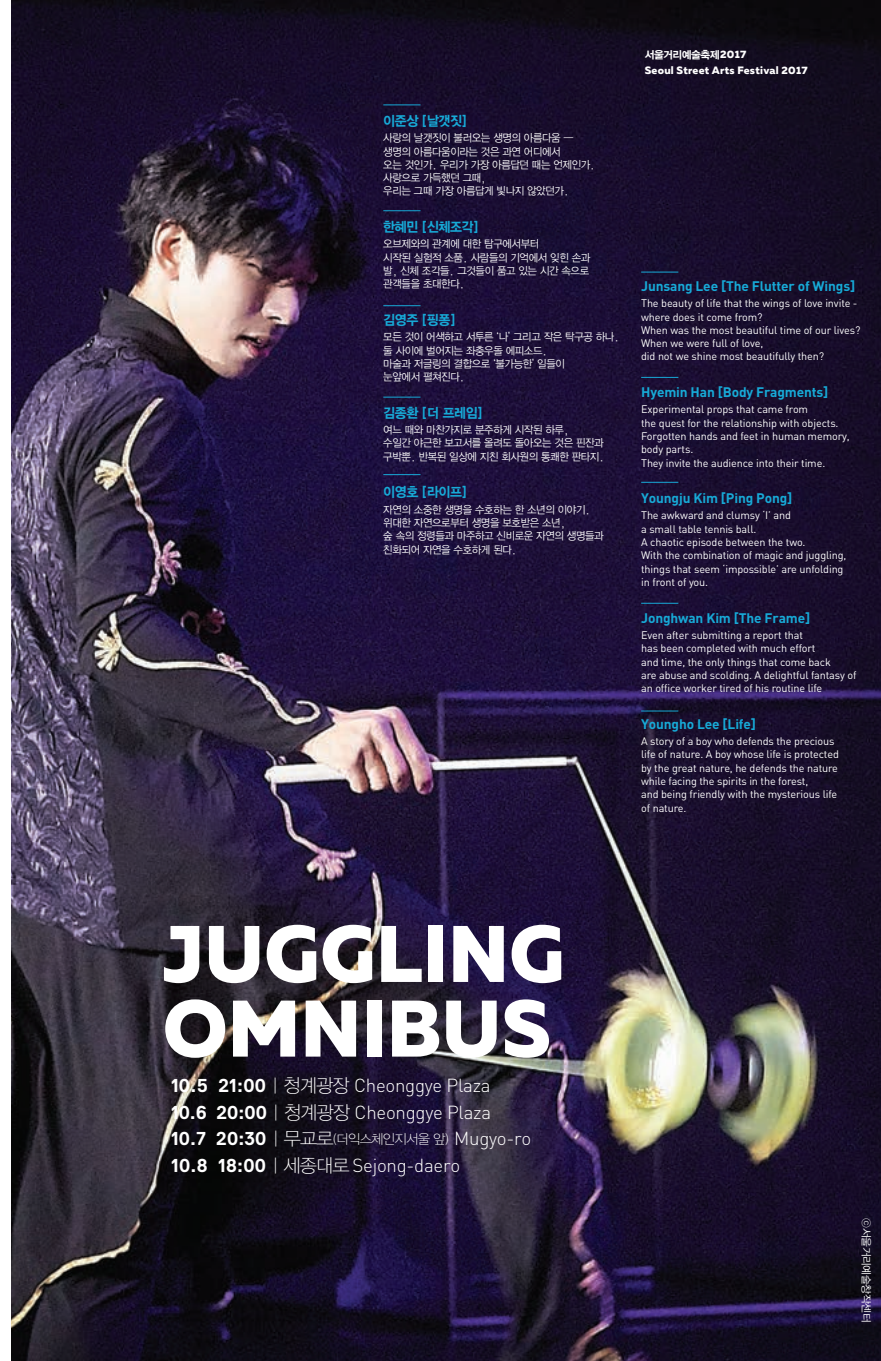
* Supported by,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주한캐나다대사관
* 협력, 캐나다 몬트리올 국립서커스학교, 몬트리올 서커스지구 서커스센터 TOHU

STAFF & CAST

[날갯짓] 창작·출연 이준상 [신체조각] 창작·출연 한혜민 | 음악 남인기
[핑퐁] 창작·출연 김영주 [더 프레임] 창작·출연 김중환
[라이프] 창작·출연 이영호

[The Flutter of Wings] Creation/Performance Junsang Lee
[Body Fragments] Creation/Performance Hyemin Han | Music Inki Nam
[Ping Pong] Creation/Performance Youngju Kim
[The Frame] Creation/Performance Jonghwan Kim
[Life] Creation/Performance Youngho Lee

50min



이준상 [날갯짓]

사랑의 날갯짓이 불러오는 생명의 아름다움 — 생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가장 아름답던 때는 언제인가.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때, 우리는 그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지 않았던가.

한혜민 [신체조각]

오브제와의 관계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된 실용적 소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손과 발, 신체 조각들, 그것들이 살고 있는 시간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김영주 [핑퐁]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투른 '나' 그리고 작은 탁구공 하나. 둘 사이에 벌어지는 최정우를 에피소드. 미술과 저글링의 결합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김중환 [더 프레임]

어느 평범한 아침까지도 분주하게 시작된 하루. 수일간 어긋난 브로셔를 쓸어내는 것은 핀잔과 구박뿐. 반복된 일상에 지친 회사원의 통쾌한 판타지.

이영호 [라이프]

자연의 소중한 생명을 수호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 위대한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은 소년, 숲 속의 정령들과 마주하고 신비로운 자연의 생명들과 친화되어 자연을 수호하게 된다.

Junsang Lee [The Flutter of Wings]

The beauty of life that the wings of love invite - where does it come from? When was the most beautiful time of our lives? When we were full of love, did not we shine most beautifully then?

Hyemin Han [Body Fragments]

Experimental props that came from the quest for the relationship with objects. Forgotten hands and feet in human memory, body parts. They invite the audience into their time.

Youngju Kim [Ping Pong]

The awkward and clumsy 'I' and a small table tennis ball. A chaotic episode between the two. With the combination of magic and juggling, things that seem 'impossible' are unfolding in front of you.

Jonghwan Kim [The Frame]

Even after submitting a report that has been completed with much effort and time, the only things that come back are abuse and scolding. A delightful fantasy of an office worker tired of his routine life

Youngho Lee [Life]

A story of a boy who defends the precious life of nature. A boy whose life is protected by the great nature, he defends the nature while facing the spirits in the forest, and being friendly with the mysterious life of nature.

JUGGLING OMNIBUS

10.5 21:00 |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10.6 20:00 |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10.7 20:30 | 무교로(덕익스체인자서를 앞) Mugyo-ro
10.8 18:00 | 세종대로 Sejong-daero

HEY NO NONNY!

10.7 20:30 |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STAFF & CAST

출연 더이앤티(호스트레일리아), 캐롤(브라질), 클라우디아(이탈리아), 마티나(이탈리아), 조성우(한국), 필라(멕시코), 레나테(멕시코), 세르지오(멕시코), 진(뉴질랜드), 클라에(미국), 폴(미국) | **음악** 장기원희 | **음악감독** 이항희 | **소리** 김보림 | **가야금** 어린이 | **타악** 민경민 | **연출** 조성우
예술감독 이현우 | **무대기술** 이태훈 | **동역** 주민아 | **인무** 원지민 | **미술소품** 정선하 | **비이스코치** 채명희 | **무대그래픽** 조원희 | **예술지원** 여신동, 트라이아론, 박지혜 | **제작** 카루이(독일), 내셔널 | **프로듀서** 채종영 | **컴퍼니메니저** 지혜성 | **홍보발디자인** 김보희 | **촬영** 조영민, 오준규
워크숍연출 한지영 | **워크숍동역** 최정민 | **코디네이터** 최정은 | **홍보** 노진애 | **무대** 블러디(미국) | **제작지원** 안정우, 김두영, 박미경
Cast David Meadows (Australia), Karol Garrett (Brazil), Claudia Roncallo (Italy), Martina Sperotto (Italy), Sungwoo Jo (S.Korea), Pilar Iquic (Mexico), Renate Wimmer (Mexico), Sergio Solis (Mexico), Jean Sargent (New Zealand), Kiah Thorsen (USA), Paul Jennings (USA)
Music Jeong-Ga-Ak-Hoe | **Music Director** Hyanghee Lee | **Vocals** Borim Kim | **Gayageum** Jin-Bo | **Percussion** Kyungmoon Min
Director Sungwoo Jo | **Artistic Director** Hyanghee Lee | **Stage Managing** ARTION | **Interpreter** Minah Chu
Choreography Jun Kyun | **Stage Arts** Sunha Jeong | **Voice Coach** Myeonghee Chae | **Graphic** Yeonghee Jo
Artistic Consultant Shindong Yoo | **Drama Consultant** Jiye Park | **Production Company** Keye Art International LLC
Producer Chungmyeong Chae | **Company Manager** Haesung Ji | **PR Design** Bohee Kim | **Photograph** Hyungjin Jo, Dooyoung Oh
Workshop Manager Jiye Han | **Workshop Interpreter** Jungmin Choi | **Coordinator** Kyeongun Choi | **PR** Shinhye Nah
Stage Brush Theatre LLC | **Production Consultant** Jeongsso Kim, Dooyoung Kim, Migyeong Baek

©Pablo Zita



셰익스피어소리극 <헤이 논 노니!> Hey no nonny!

인터내셔널액터스앙상블
International Actors Ensemble
한국 Korea



가을밤을 수놓을 사랑의 소네트. 말과 언어, 그리고 음악의 향연!

셰익스피어의 책 속에 잠들어있던 다양한 사랑의 말들이 깨어나 새로운 한편의 이야기가 되어 흐른다. 여섯 가지 세계의 언어들과 우리 음악의 만남은 더욱 풍성한 가을밤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줄리엣의 집 앞마당은 기면무도회가 한창이다. 발코니에서 노래하는 줄리엣과 바로 옆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유모, 노랫소리에 발코니를 바라본 로마오는 줄리엣의 유모에게 쪽 빠져 몇 마디를 나누다 쓰러져 실려 나간다. 자신을 사랑한 로마오가 죽어버린 줄 안 줄리엣은 식물을 전배하고 발코니에서 내려오질 않는다...

*영국 셰익스피어글로벌프랑크 산발 배우들과 정기약회가 선보이는 셰익스피어소리극 <헤이 논 노니!> 한국 초연.

'인터내셔널액터스앙상블'은 영국 셰익스피어 글로벌프랑크 'International Actors' Fellowship'에 선발된 14개국 배우들로 구성된 다국적 셰익스피어 극단이다. 2016년, 멕시코에서 열린 창단공연으로 현지 관객과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17년, 평창문화올림픽 아트그룹으로 선정되었다.

A sonnet of love to embroider autumn nights. A feast of language and music!

William Shakespeare's words of affection are revived from the old books and recreated into a lovely story for modern audiences. Performed in six different languages and accompanied by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story welcomes us to an enchanting autumn evening.

In Juliet's garden, the crowd enjoys a lavish masquerade. Juliet sings by her balcony while her nurse hangs out the laundry. Romeo, at first enamored by Juliet's song, ends up falling in love with the nurse. After a short exchange, Romeo suddenly collapses and is carried out. Juliet believes that her lover has passed away and remains by her balcony...

*Shakespeare's Globe Theatre's international fellowship actors, and Jeong-Ga-Ak-Hoe, present the world premiere of "Hey no nonny!" in Korea.

'The International Actors Ensemble (IAE)' is a Shakespeare theatrical group that consists of 23 actors from 14 nations, who won the International Actors' Fellowship at the Shakespeare's Globe Theatre in London. The Ensemble astounded the world with its debut production in Mexico in 2016, with very favourable responses from spectators and the local media. 'IAE' was also designated as the theatre group for the PyeongChang Cultural Olympiad.

*평창문화올림픽 공모 선정사업/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공식프로그램



50min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거리 Another people, Another street

모다트
Modart
한국 Korea

까레이스키, 우리의 또 다른 민족 고려인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리의 또 다른 민족 고려인을 만나다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진 풍파를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은 중국과 러시아로 흩어져 또 다른 이주역사를 만들었지만 이는 민족의 독립 투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되었다. 연해주, 중앙아시아에서 살아가는 고려인들은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역사다. 고려인 이주역사 80주년을 맞아 그 흔적이 담긴 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모다트’는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몸짓을 찾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한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협업하며 장르의 파고가 아닌 장르의 융합을 통해 몸짓을 중심으로 한 음악과 오브제와 만남을 만들어낸다. 거리의 역사성과 소재를 토대로 예술가들과 발전적인 작품을 만들어가는 단체, ‘모다트(Modart-modern art)’이다.

Kareiski, another ethnic Koreans. The 80th anniversary of the forced deportation of Goryeo people, we meet another ethnic Koreans, the people of Goryeo

The Korean people, who had to suffer the whirlwind of the era, were scattered to China and Russia and made another history of migration. But it became the fuse of independence of n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im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s living in the Maritime Province and Central Asia are another history of our nation. It i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people on the 80th anniversary of the history of migration.

‘Mordart’ is a group that work to find modern yet Korean movement. By cooperating with artist of various genres, they try to combine music, body and object to make even more developed work. ‘Modart(modern art)’ is a group that makes progressive works with artists based on the history and material of the streets.

Supported by...  *이 공연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주)영도인더스트리, (주)네오오트도의 후원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임시정부의 일치를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TAFF & CAST

연출 양길호 | 배우 박성윤, 하영미, 이학, 양길호
연주자 김현성(작곡 및 건반), 김슬지(아쟁), 구성모(타블라), 김인아(거문고) | 탈 제작, 염정애 | 의상 안혜은 | 오브제 박현이
시각작가 권아람 | 영상 촬영 김성민 | 기획 서상혁
Director Gilho Yang | Performer Seongyul Park, Yeongmi Ha, Hak Lee, Gilho Yang
Musician Hyeonseop Kim(Composition&Keyboard), Seulji Kim(Ajaeng), Seongmo Kool(Tabla), Ina Kang(Geomungo)
Mask Making Jeongae Um | Clothes Haeun An | Objet Hyeon Park | Visual Artist Ahram Kwon
Photograph Chad Park | Video Seongmin Kim | Produced by Sanghyeok Seo

ANOTHER PEOPLE, ANOTHER STREET

10.6 15:00 | 무교로(서울파이낸스센터 뒤 사계남) Mugyo-ro

10.7 19:00 | 서울역광장(경우의사 의거 터) Seoul Station Plaza

*이동현공연 Promenade Theatre



만약 길에서 광대를 만난다면 KOREAN KLOWN KONZEPT(K.K.K.)

테이프 라이엇 Tape Riot

공중그네 히어로 Trashpeze

뿔어병 교수의 이상한 실험실 PROFESSOR PLUNGER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참치체리 Chim Chim Che-ree

네오피노 Neo-pino

유랑호프 Unemployed Hop

고 백 Go Back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Questions about the Names of Body Parts

청춘예찬 Ode to Youth

복 실러가요 놀랑 2017 BLESS YOU! NOLYANG 2017

경상도 비눗방울 Gyeongsang Bubble

자유참가작

OFF PROGRAM





만약 길에서 광대를 만난다면 KOREAN KLOWN KONZEPT(K.K.K.)



엘레멍 디스포니블
Les ELéments DISPOnibles
프랑스 France

어느 날 퇴근 길, 당신 앞에 광대가 나타난다면?

40년 동안 광대로 살아온 폴란드 출신 Pat Belland, 서울 거리 곳곳을 누비며 그 여정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마침내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은 '서울 갤러리'가 만들어 진다.

'엘레멍 디스포니블'의 Pat Belland는 40여 년 간 거리극을 하는 광대로, Jef Rabillon는 약 30여 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What if you meet a clown on the way home?

Free clown meets every people in the city of SEOUL and a professional photographer takes lots of pictures of the inhabitants and leaves a photo collection to the city.

'Pat Belland' of 'Les ELéments DISPOnibles' has been working about 40 years in street theater and the 'Jef Rabillon' has done pictures of shows for 30 years.

Supported by

10.5~8 14:00~18:00 | 축제장 곳곳 Around Festival

240min

*이동형공연 Promenade Theatre

STAFF & CAST

Clown_ Pat Belland | Photographer_ Jef Rabillon



테이프 라이엇 Tape Riot



아스팔트 필로텐
ASPHALT PILOTEN
스위스 Switzerland

하루하루 살아가는 도시 속 사람들, 그 현실 위에 펼쳐는 게릴라 테이프 어택!

<테이프 라이엇>은 무용, 테이프 그래피티, 음악이 함께 펼쳐지는 복합 퍼포먼스다. 아티스트의 움직임, 거리 이곳저곳에서 그려지는 선들, 이들과 함께 디자인된 소리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도시의 풍경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한다.

'아스팔트 필로텐'은 2010년 안무가 Anna Anderegg에 의해 설립된 예술가 조직으로 시각예술, 무용, 사운드 디자인 등 여러 미디어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도록 기획됐다. 2013년에는 스위스 문화부에서 수여하는 June Johnson dance prize와 the Kultur- & Kreativipiloten Deutschland를 수상했다.

*TAPE RIOT is co-produced by LA PAPERIE and KOSICE 2013. TAPE RIOT has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SACD with the grant 'Auteur d'espace', IN SITU network, TESA and I'ATELLINE.

Supported by

10.5 14:00 | 무교로 Mugyo-ro

45min

10.5 18:00 | 청계천변 Cheonggyecheon

10.6 14:00 | 무교로 Mugyo-ro

10.6 17:00 | 덕수궁돌담길 Deoksugung-gil

*이동형공연 Promenade Theatre

STAFF & CAST

Choreographer_ Anna ANDEREGG | Performer_ Laura KEIL, Sachiko KUNIEDA
Visual Tape Artist_ Hervé THIOT | Sound Designer_ Marco BAROTTI



공중그네 히어로 Trashpeze

Wise Fools 와이즈 폴스
Wise Fools
핀란드 Finland

모든 이야기의 뒤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공중그네 위에서 펼쳐는 세 여자, 우아한 드레스, 쓰레기봉투에 관한 이야기다. 드레스를 걸친 그녀들은 우아했다. 적어도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쓰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지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녀들이다. <공중그네 히어로>는 우아함 이면의 자저분함을 고집어내 우리 일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회 계층 구조를 드러낸 공중그네 서커스 작품이다.

'와이즈 폴스'는 공중그네와 스키핑 로프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핀란드 출신의 컨템포러리 서커스 트리오다. 이들은 핀란드의 청소년 서커스 육성기관인 'Sorin Sirkus'에서 취미로 서커스를 시작해 École Supérieure des Arts du Cirque(ESAC)에서 집중적으로 수학하고 2014년 졸업했다. 이후 태양의 서커스, German variety company GOP와 한국, 스페인, 이스라엘 등 다양한 나라의 거리예술 축제와 함께했다.

Behind every story, there is another story

<Trashpeze> is a story of three girls, one evening gown and a trash bag. It all starts on the trapeze. They are fabulous, until they are not. Holding appearances can be hard work, and these ladies are not afraid of doing what it takes to get the upper hand. <Trashpeze> is a play between luxury and trash, a meeting point where the invisible hierarchies of our everyday lives become visible.

'Wise Fools' is a contemporary circus group specializing in aerial disciplines. They graduated from ESAC(École Supérieure des Arts du Cirque in Brussels) in 2014 with an original triple trapeze number. During the three years they developed a style where two catchers swing and toss one flyer. They have since worked for example with the world famous Cirque du Soleil, the German variety company GOP and various street art festivals in Korea, Spain and Israel.

10.5 13:00, 16:0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10.6 14:30, 16:3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10.7 13:30, 16:3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30min

STAFF & CAST

Performer_ Valpuri Kaarninen, Maria Peltola, Jaimee Allen



똥어뻥 교수의 이상한 실험실 PROFESSOR PLUNGER

FANZINI Fanzini Productions
핀지니 프로덕션
Fanzini Productions
아일랜드 Ireland

조금은 독특한 아재 똥어뻥 교수의 요란한 발명품 자랑

폭탄 맞은 머리와 색소가 눈길을 끄는 아재, 자칭 '똥어뻥 교수'가 자신의 가장 기발한 발명품들을 선보일 준비를 끝마쳤다. 똥이 튀어 나올지 모르는 짜릿하고 아슬아슬한 똥어뻥 교수의 세계로 다 함께 빠져 보시다!

'핀지니 프로덕션'은 남서부 아일랜드 Kerry 주 Tralee 출신의 Con Horgan이 세우고 운영하는 현대 서커스 단체이다. 이들은 1997년부터 듀오 쇼 <핀지니 브라더스>와 Con Horgan의 솔로 퍼포먼스인 <똥어뻥 교수님>을 공연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아일랜드 국립 서커스 축제의 설립사이자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A charming old world rogue, Professor Plunger shows off his greatest invention

Plunge into world of the precarious Professor Plunger. The Professor is ready to show off his greatest invention ; his amazing hair! The Professor is a charming old world rogue with a little cheeky grin and a very large head of hair.

'Fanzini Productions' is a contemporary circus company founded and run by Con Horgan from Tralee, Co.Kerry, Southwest Ireland. They have been performing since 1997 in a duo show <Fanzini Brothers> and Con Horgan has been performing solo as <Professor Plunger>. Fanzini Productions are also the founders and producers of the annual National Circus Festival of Ireland.

10.5~6 16:00 |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10.7 15:00 | 무교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 Mugyo-ro
10.8 13:00 | 세종대로 Sejong-daero

30min

STAFF & CAST

Performer_ Con Horgan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고블린파티
Goblin Party
한국 Korea

선조님들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생각한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는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 작품이 시작됐다. 단순히 전통의 움직임을 모방하거나 그 시대가 아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도 그 시대의 사물, 인물, 사건 등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상력을 더해 전통을 재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7년 창단한 '고블린 파티'는 특유의 유머와 진지함을 무기로 관객 소통을 가장 큰 중점으로 두고 관객의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구하고 있다. 비장한 힘과 재주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짓웃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도 많이 하는 한국의 도깨비를 단체의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페스티벌에 많은 초청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Telling our ancestors how we imagine old days (long time ago)

The work begins with a question, how to continue the way of tradition. In addition to simply copying the movements of tradition or expressing emotions caused by the times, the work will present a new perspective that reinterprets the tradition by adding imagination of modern people while utilizing various subjects such as objects, characters from the past and past incidents.

'Goblin Party' was founded in 2007 and has been endeavoring to make works that can maximize the view of the audience with the most emphasis on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with its unique humor and seriousness. Their symbol is the mischievous goblin of Korea, that is known to have extraordinary strengths and talents. The group has been invited to various festivals in Korea and overseas, and has been working actively.

10.5 16:00 | 무교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 Mugyo-ro

10.6 19:40 | 무교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 Mugyo-ro

STAFF & CAST

방향제안_지경민 | 공동연무_임진호, 이경구, 지경민 | 무대_김진우 | 조명_이승호
Direction_Kyungmin Ji | Co-Choreography_Jinho Lim, Kyunggu Lee, Kyungmin Ji
Stage Manager_Jinwoo Kim | Lighting Director_Seungho Lee



침침체리 Chim Chim Che-ree

김유인
Uin KIM
한국 Korea

유모차와 여인 그리고 비눗방울

유모차를 끌며 이리저리 헤매던 한 여인. 마임과 비눗방울, 저글링 등을 통해 아이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때와 헤어진 후를 이야기한다.

'김유인'은 2007~2013년도까지 프로마술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거리예술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던 중 일본의 마임리스트 '오쿠다 마사시'를 만나 비눗방울 퍼포먼스와 마임연기 지도를 받았다. 8명의 광대연기자가 모여 설립한 단체 '쇼모스'에서 '2017 신작발표 워크숍'을 통해 〈침침체리〉를 발표했고 〈2017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 광대의 도시〉에 선정되었다.

A stroller, a lady and bubbles

A story is told with mime, bubbles and juggling about a woman who was wandering around pushing a stroller having a happy time with her child and the time after parting with the child.

'Uin KIM' was active as a professional magician from 2007 to 2013. While studying with interest in the street art, she met mime specialist Okuda Masashi of Japan, and received soap bubble performance and mime acting instructions. A new work <Chim Chim Che-ree> was performed at the 'Workshop for New Works of 2017' by the 'Shomos' group, which was formed by a group of 8 clown performers. <Chim Chim Che-ree> was selected at the <2017 Ansan International Street Puppet Festival - Clown City>.

10.5 15:00 | 서울광장(현대광장) Seoul Plaza

10.6 14:00, 18:00 |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STAFF & CAST

연출_오쿠다 마사시 | 배우_김유인
Director_Masashi Okuda | Performer_Uin Kim



네오피노 Neo-pino



시파 프로젝트
See far Project
한국 Korea

로봇과 인간의 쫓고 쫓기는 이미지 서커스

동화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삼아 현대인 사이의 소통 부재, 물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도구가 되어가는 인간의 존재가치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점차 기계화 되어가고 있는 모두에게 인간만의 고유한 순수성과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며 소통하고자 한다.

'시파(始波)프로젝트'는 "세상은 매 순간 새롭게 변하는데, 왜 새로운 사람들이 과거의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뭉친 청년 창작집단이다. 발칙한 상상력을 토대로 장르와 형식의 파괴 그리고 융합의 연속적 실험과 도전을 통한 예술의 시대적 파급효과를 지향한다. 최근에는 연극(theatre)과 서커스(circus)의 합성어인 'Ceatre'의 발칙한 상상 표현을 주로 탐구하며 실현하고 있다.

★협력: 퍼포먼스 팩토리
★Cooperation with: Performance Factory

Image circus of robot and human, chasing after each other

The story <Pinocchio>, as its motif, this work asks about the existing value of human being that is becoming instrumental in the materialistic society without communication. This work tries to talk about the inherent purity and free will of human beings to all those who are gradually becoming mechanized.

'See Far Project' is a young creative group that started off with a following question: "The world is changing every moment, why should new people be oriented to the past?" Based on cheeky imagination, it aims at the ripple effect of the art by the theater experiment and the challenge through the destruction and the fusion of the genre and the form. Recently, they came up with a word 'Ceatre' [compound word of theater and circus]. They are exploring new and imaginary expressions like this.

10.5 15:00 | 서울신문사 앞 The Seoul Sinmun

30min

10.6 15:00, 18:00 | 서울신문사 앞 The Seoul Sinmun

STAFF & CAST

연출: 임형수 | 배우: 권동원, 권해원, 김현기, 김세진, 임예은 | 무대: 김선혁 | 음향: 문학진
Director: Hyungsoo Lim | Performer: Dongwon Kwon, Haewon Kwon, Saein Kim, Yeen Em
Stage Manager: Sunhyuk Kim | Sound Operator: Hakjin Mun



유랑호프 Unemployed Hop



유랑호프
Unemployed Hop
한국 Korea

관객의 기억 속 인물을 칵테일로 빚어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될 <유랑호프>는 손님이 간직하고 있는 옛 인물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발효시켜 술로 빚어준다. 옛 인물에 대한 감정에 따라 서로 다른 색과 향으로, 그 기억의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도수의 칵테일로 나타난다. 나의 기억 속 그 사람은 어떤 향취로 숙성되어 있을까?

연출인 시각예술가 '최세진'은 우리나라 5개 공업단지의 실업률과 부채율을 술로 맛보는 시음회 퍼포먼스인 <실직한 호프>와 서울 시민들의 여러 감정을 술에 녹인 레시피를 선보인 <플러그인 시티(김보람 연출)>, 반월공단 거리에서 만난 근로자들의 사연을 즉석에서 칵테일로 빚어낸 <반월 축제비>등을 선보인 바 있다.

★본 작업은 <반월 축제비>라는 작품명으로 <참여적 전파>(2017)전에서 처음으로 전시되었습니다.
★This work was exhibited for the first time in <Participation Previous>(2017) under the name 'Banwol Weasel'

Make cocktail with a memory of someone

Cocktails portray the characters in the memory of a visitor met across the street in the city. Guests can drink cocktails with different colors, flavors and alcoholic strength, depending on the personality, unique habits and unusual anecdotes they remember. A unique cocktail is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bringing back the memories.

The director 'Sejin Choi' is a visual artist. He has introduced following works: <Unemployed Hop>, a beverage tasting session, which used various cocktail ingredients and aged alcohol with unemployment rate and the debt ratio of various industrial parks, <Plug-in City (Director: Boram Kim)>, a recipe for Seoul citizens' emotions, and <Participation Previous>, which made cocktails on the spot with the stories of workers on the streets.

10.6 17:00~21:00 | 청계천로(사직자점_모전교) Cheonggyecheon-ro

50min

10.7 17:00~21:00 | 서울광장(사직자점_종합안내소 앞) Seoul Plaza

★이동형공연 Promenade Theatre

STAFF & CAST

연출/배우: 최세진 | Director/Performer: Saejin Choi



고 백 Go Back

아이모멘트
I MOMENT
한국 Korea

떠나지도 머물지도 못하는
망설임의 연속,
선택의 기로에 놓인 자들의 치열한 고 백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우리네 인생. 그 치열한 갈등의 순간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GO)? or 과거에 머물 것인가 (BACK)? <고 백>은 'GO'와 'BACK', 두 사이에서 벌어지는 망설임과 고민을 움직임과 이미지로 표현하고, '벤치와 가방' 두 오브제를 이용해 머물려고 하는 자와 떠나려는 자 사이의 충돌과 파장을 몸짓으로 그린다. 현실과 비현실을 오고가는 환영을 통해 일상 속 관객들의 감각을 일깨우고자 하는 작품이다.

'아이모멘트'는 신체극, 무용, 전통연희의 배경을 가진 세 명의 예술가가 모여 만든 단체다. 거리극, 무용, site-specific,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접근을 시도하며, 오브제와 몸짓언어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젊은 거리극 단체이다.

Will I forget and go forward,
GO? Will I be caught in memory
and stay in the past _BACK?

In <GO BACK>, movement and images express the conflicts and the anxieties between the two. Two objects 'Bench and Bag' are used to express the conflict and clash between the persons who want to stay and leave. The moments of illusion that come and go from reality and unrealism awaken the senses of the audience in everyday life.

'I MOMENT' is a young street theater group that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various audiences in everyday life through the use of objects and the language of gestures, while crossing genres such as street drama, dance, site-specific, and circus.

10.5~6 16:00 | 서울시립미술관(앞마당) Seoul Museum of Art

25min

STAFF & CAST

연출 노재현 | 배우 노재현, 김은라, 강민지 | 음악 신재욱 | 무대감독 정현준
Director Jaehyun Nho | Performer Jaehyun Nho, Eunra Kang, Minji Kang
Sound Jaewook Shin | Stage Manager Hyunjun Jang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88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Questions about the Names of Body Parts

유지영
Jiyoung Yoo
한국 Korea

우리는 왜, 언제부터 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우리는 태어나 자라면서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라고 배우며 이와 같은 지칭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왜 신체 부위의 이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일까? 당연하게 여긴 몸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 의문을 제시해 본다.

'유지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예술사를 졸업하였고, 신체의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안무를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인체도>, <신체퍼즐>, <낯선, 몸>, <그래야만 한다>,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계속해서 몸을 탐구하고자 한다.

Since when and why have
we ever call the names of
the body part like this?

As we grow up, we accept it and learn it so naturally to call our body parts. For example, hands, feet and etc. Why don't we ever have doubts about these names? A question is suggested when changing the names of the body parts.

'Jiyoung Yoo' graduated from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majoring in dance creation and art history. She began her choreography based on her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the body. Until now, She has presented works such as <Body diagram>, <Body puzzle>, <Unfamiliar body>, <Should be>, <Questions about names of body parts> and more. She hopes to continue to explore the body.

10.5 13:00, 18:00 | 무교로(연재리나스 앞) Mugyo-ro
10.6 13:00, 16:30 | 무교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 Mugyo-ro

15min

STAFF & CAST

인무 유지영 | 무용수 유지영, 이종현, 장하람, 김용빈 | 보이스 김홍주
Choreography Jiyoung Yoo | Dancer Jiyoung Yoo, Jonghyun Lee, Haram Jang, Yongbin Kim | Voice Hongjoo Kim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89



청춘예찬 Ode to Youth

젬 댄스 컴퍼니
Gem Dance Company
한국 Korea

우리는 계속 청춘이고,
청춘이길 바란다

〈청춘예찬〉은 '이 시대의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체적인 삶이 아닌, 사회의 체제와 주위의 환경에 안주하고 있는 청춘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시작된 삶의 진정성을 발견한다. 치열하게 시작된 삶의 과정을 겪고 있는 청춘의 모습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으로 가득하다.

'젬 댄스 컴퍼니'는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세종대 공연예술대학원을 졸업한 '선정찬'과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동대학원(무용공연전공)을 졸업한 '이영훈'이 공동대표인 현대무용 기반 단체다.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 작품 활동을 하며 무용은 난해하고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삶의 이야기를 진실된 몸짓, 춤으로 발전시켜 표현하려 한다. 대중성과 작품성의 경계를 유지하며 소통하고 호흡하는 것이 목적인 '젬 댄스 컴퍼니'는 무대공연과 거리공연이 가능한 작품으로 현대무용을 알리고자 한다.

We are young and
we hope to stay young

This work deals with the story of youth in this age. We discover the truth of life that has already begun in the form of youth who reside in the system of societ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not the subjective life. The look of youth undergoing a fierce process of life is filled with times that everybody can and can not understand.

'Gem Dance Company' is a group based on contemporary dance, which is jointly represented by Younghun Lee, who graduated from Hansung University and Sejong Graduate School of Performing Arts, and Jeongchan Seon, who graduated from Hansung University's department of dance and graduate school(dance performance major). They work on the story of people living rather than abstract theme and making various attempts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dance is difficult. They express the story about life with dancing as a true gesture and they aim to let people know more about contemporary dance by choreographing various works that can be performed both on the stage and street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while maintaining the boundary between popularity and performance quality.

10.5 14:00, 17:0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20min

10.6 13:30, 15:30 | 서울광장(서울시청 앞) Seoul Plaza

STAFF & CAST

연출 선정찬, 이영훈 | 무용수 선정찬, 이영훈 | 음향 윤휘준

Choreography_ Jeongchan Seon, Younghun Lee | Dancer_ Jeongchan Seon, Younghun Lee | Sound_ Hwijun Yun



복 실러가요 놀랑 2017 BLESS YOU! NOLYANG 2017

창작음악그룹 the똥
Music Band - the Tune
한국 Korea

관객과 함께 만들어보는
우리시대의 축원 음악굿판

생과 사의 경계인 바다를 속명처럼 안고 사는 민초들에게 유일한 안식과 비념의 장지로 향해 지던 축제로서의 '굿'과 '인요'를 음악의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

'창작음악그룹 the똥'은 전통타악기와 해금, 건반, 보이스, 퍼커션 등 4인의 여성뮤지션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실험성 강한 창작활동을 하고자 모인 창작음악그룹이다. 국악, 재즈, 컨템포러리, 집시 음악을 접목하여 동양의 오묘한 아우라가 돋보이는 음악을 창작한다.

Making the music together
with the audience

Festive exorcism and folk song performances are the only comfort to the people who live near the sea of life and death. This is the main motif of their music.

'Music Band - the Tune' composed of four female musicians who sing and play the instruments like traditional percussion, haegeum, keyboard, and percussion. The group was formed to reinterpret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experiment creatively. They combine traditional Korean music, jazz, contemporary, and gypsy music to create music that stands out with its subtle oriental aura.

10.6 17:00 |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40min

10.7 18:30 | 무교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 Mugyo-ro

STAFF & CAST

전통타악/해금 이성순 | 보컬 고현경 | 건반 이유진 | 타악 송한일 | 진행 이은정
Traditional Percussion/Haegum_ Songseung Lee | Vocalist_ Hyunkyung Go
Keyboard_ Yujin Lee | Percussion_ Haneart Song | Stage Crew_ Eunjeong Lee



경상도 비눗방울 Gyeongsang Bubble

팀클라운
Teamclown
한국 Korea

경상도스러운,
경상도 스타일의,
경상도처럼 생긴 비눗방울

비블 카와 경상도 레옹, 그리고 서울 마릴린 먼로가 희망의 이야기를 담은 비눗방울을 만나다.

'팀클라운'은 즐거운 공연을 배달하는 광대들로 새롭고 즐거운 유희한 거리쇼 창작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단체이다.

**Gyeongsangdo like,
in Gyeongsangdo style,
soap bubbles that resemble
Gyeongsangdo**

Bubble Car, Gyeongsangdo Leon, and Seoul Marilyn Monroe meet bubbles which contain hope.

'Teamclown' is a group that continues to strive to create new and exciting street shows.

10.6 16:00, 19:00 | 무교로(엔제리너스 앞) Mugyo-ro

40min

STAFF & CAST

연출/배우_ 안동윤 | 셋업_ 우종하

Director/Performer_ Dongyoon An | Set up_ Jongha Woo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기획프로그램

FEATURE PROGRAM

플,장,대,로 The Feast on the Street

시,작,: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 축제 Sizak: Small festival by Citizens

전문가프로그램 Professional Program

시민예술공작단 Citizen Artists

길동이랑 놀자 Let's play with Gildongees

협력프로그램 Affiliate Program

SEOUL
STREET
ARTS
FESTIVAL

페막프로그램 끝.장.대.로

Closing Program
The Feast on the Street

노는 대로 Playing on the Street

10.8 12:00~17:00
세종대로 Sejong-daero

유쾌한 놀이로 아스팔트 위를 점령한다

도시와 거리, 예술과 시민의 경계가 허물어진
11차선 도로 위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년에 단 한 번, 남녀노소 구분 없이
출길 수 있는 세종대로에서 유쾌한 위로를!

Delightful Play occupies the road

An eleven-lane road, where
there is no boundaries between city,
street, citizen a variety of play programs
for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
will be offered. Once a year,
don't miss this wonderful event!
Let's feel delightful comfort together
on Sejong-daero!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세종대로!

왕복 11차선의 도로 위에 자동차 대신 즐길거리가 놓인다.
축제적 상상으로 채워진 도로 위 테마파크 '끝.장.대.로'
차가 없는 세종대로의 주인은 바로 당신!

싸프 로-라장 SSAF Rolla-Jang (Roller-skating rink)

신나는 음악 그리고 DJ들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싸프 로-라장'으로 놀러와!!
"Come, join and play in our memorable ground,
SSAF Rolla-Jang!!"



춤추는 버스 Dancing Bus

교통수단인 버스가 이동식 댄스홀로 태어났다!
안녕안녕, DJ 버스기사와 함께 떠나는 댄스들썩
신나는 댄스타임! 춤추는 버스 지금 출발합니다~
Our daily transportation will be transformed to
a dancing stage! We are going on the road with
a funny and bouncy DJ-ing bus driver and
a clippie girl! Dancing Bus is on the way!

배우: 강지승, 김미진, 박요한, 박정기, 배진주, 이재혁, 이현아, 전선영



Sejong-daero, a road cutting across the heart of Seoul!

On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what you find at Sejong-daero is entertainment, not vehicles.
'The Feast on the Street', an amusing theme park which is created upon the road named
creativity and fun. Don't miss this wonderful festival, Be the king of Sejong-daero!

버스극장 Bus Theater

서울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어린이만 탑승할 수 있는 버스
그 버스의 종착지는 동화의 나라!
The bus parked in the middle of the road in Seoul is only
for children. The bus is heading to the world of fairytale!

모빌라벨라
MOBILYBELLA
당카벨의 주위를 돌아다니기 위한 앨리스의 여행가
Alice's trip to find out Tinkerbell's spell!

그레텔과 한젤
Gretel and Hansel
가인에게 잡힌 그레텔과 한젤자매.
그녀들은 영미 이빨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Gretel and Hansel, those two sisters were captured by a giant.
Will they be able to see their parents again?

★ 5-10세 이하 어린이 대상 | ★ for 5-10 years old children



★ 온라인 사전예약(선착순) Online pre-reservation program

유쾌한 학교 Delightful School

축제를 함께 즐기는 문화동정(動情)회!
추억도 살고 상품도 받자!
An alumni association that enjoys the festival
with cooperation and experience activities.

단체명: 창작집단 탈무드 Creative Group Talmud
후원: 씨월드 Cyworld



속마음 버스 Sokmom Bus

소중한 사람과 마주앉아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
A time for you to share a conversation deep down
in your mind with your dearest person.

★ 이번 속마음 버스는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진행되는 특별버전으로
공감인과 (주)카카오가 함께합니다.

Sharing partner's inner feeling Bus

kakao 공감인



서커스 예술놀이터 Circus Arts Playground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서커스 예술놀이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There's only one place
in the world, Let's just play
on the 'Circus Arts Playground'

단체명: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한 평 시민 책시장 Secondhand Book Market

'한 평 시민 책시장'에서 버려진
동화책으로 만드는 나만의 팝업북!
Creating our own pop-up book
by the abandoned
fairytale book at
'Secondhand Book Market'

단체명: 한 평 시민 책시장



페막프로그램 끝.장.대.로

Closing Program
The Feast on the Street



움직이는 대로 Parade on the Street

10.8 15:00~17:00
세종대로 Sejong-daero

연출, 임형수 | 음악감독, 김정용
합기단체, (비산)창어배우, 라파커스, 시파 프로젝트,
물럭, (사)대한실용무용협회, 서울시구립여성합창단연합회,
(사)한국비교노가타협회, 한국아프리카댄스협회,
한국문화재단, 서울대학교 국악학과, 서울방송고등학교,
국악농협 주부대학 동창회, 재이퍼커션아트, 대한예술문화연구소,
난타 '도리개', 서울이카데이, 한울림예술문화상설,
산타이당 국악예술단, AIR SEOUL, 한빛단,
영인대학교 연극학과, 용인시 동천동 주민, 클래식 에스모

지난날의 패래함은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의 거리를 유쾌함으로 가득 채워보자!

도로 위에서 나이, 성별, 국적, 취향 등등 다양한 사람들 모두가 만나
신나게 즐기고 어울리며 서로 유쾌한 위로를 나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일상성을 가진 도로 위에서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나와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 한다.

Throw away the stinky past and let's fill our streets with pleasure!

People on the road of all ages, gender, nationality, taste,
and etc. meet, enjoy, hang out and share pleasant comfort.
We embrace diversity and move forward together,
and talk about ourselves with diverse performances
expressing freedom on the roads of everyday life.



그 대로

Performance on the Street

10.8 13:00~20:00
세종대로 Sejong-daero

자유로운 상상을 만끽하는 거리예술 공연

거리극, 거리무용, 서커스 등 다양한 공연이 아스팔트를 무대로 펼쳐진다.

The wonderful world of imagination is fueled by street arts performance

Diverse performances such as street theatre, street dance,
and circus are presented on Sejong-daero.

PROGRAM 일여의 꿈 Dream of Invisibles _ p.70
돌아봄 교수의 이상한 실험실 PROFESSOR PLUNGER _ p.83
저글링 올니버스 Juggling Omnibus _ p.72



페막 공연 Closing Performance

10.8 19:00~21:00
세종대로~서울광장 Sejong-daero - Seoul Plaza

<불꽃을 따라> SU À FEU _ p.32

데브루 벨자크 Deabru Beltzak

<트랜스포밍 서울> Transforming Seoul _ p.64

예술불꽃 화(花, 火)랑 HWARANG Art Pyrotechnics

아시아체어샷 Asian Chairshot

사이키델릭한 선율과 무개념 있는 연주가 어우러진 3인조 밴드

시.작.: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 축제 Sizak: Small Festival by Citizens

10.7~10.8 13:00, 15:00, 17:00 |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재능과 끼가 넘치는 시민예술가들, 그들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

청계광장에서 펼쳐지는 '시.작.' 무대는 시민예술가들의 예술적 협업을 지향하며 선정단체들 간의
협력공연을 위한 예술적 교감과 소통의 무대를 제공한다. 시민예술가와 예술동아리들을 지원,
네트워크 형성과 무대 기회를 통해 함께 즐기며 활동할 수 있는 열린 예술의 장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Sizak' is a program where we provide a stage for citizen-artists with talent and passion

'Sizak' stage will be set in Cheonggye Plaza, where we aim for artistic cooperation,
communication of the citizens and communion among the selected groups.
We aim to make an open-arts stage where we support the citizen-artists and arts groups,
so that they can perform and create networks with other artists.

날짜 Dates	시간 Time	단체명 Company
10.7(토) Day 1	13:00~14:00	재미퍼커션아트
		인사이드플로우
		엔분의 일
	15:00~16:00	한울림예술문화상설
		아크
		프뉴마발레단
10.8(일) Day 2	13:00~14:00	MC LEE BAND
		난타 '도리개'
		연앤딩
	15:00~16:00	코틴그룹
		여비아랍춤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10.8(일) Day 2	17:00~18:00	샤카샤카 우쿨렐레
		더 뮤즈오카리나 앙상블
		케이크루
10.8(일) Day 2	17:00~18:00	낮은음자리
		성산행복한어린이합창단
10.8(일) Day 2	17:00~18:00	도시의 노마드
		도시의 노마드

학술 및 워크숍 프로그램

Academic and Workshop program

거리예술 전문가 미팅 : FOCUS ASIA

10.5, 10.8 시민청(예정) Seoul Citizens Hall

아시아 지역 거리예술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을 위한 의견 공유, 축제에 소개되는 한국 거리예술 작품 현황 리서치와 단체들과의 개별 만남이 진행된다.

주제 아시아 거리예술 축제 네트워크와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안

Street Arts Professional Meeting : FOCUS ASIA

Asian street arts professionals gather to share opinions for collaboration, meet individual artists and research on the Korean street arts introduced in SSAF2017.

Subject Building Asian Street Arts Festival network and a collaboration platform

거리예술 비평 모음집 발간

거리예술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람자의 거리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거리예술 창작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거리예술 비평 모음집을 발간한다.

* 10월 말 발간 예정, 발간 공연 전문 중간 평문가와 공연 전문 기자, 신진 평문가

SSAF2017 Street Arts Criticism Collection will be published in the end of October to develop understanding of street arts by strengthening the theoretical base of street arts field and to communicate continuously between creators and audience. Also it expects improvement of street arts creating environment in Korea.

한영 거리예술 국제교류 세미나

: 영국의 거리예술, 거리예술의 유럽투어

10.10 15:00-17:30 문화비축기지 T6 강의실
Oil Tank Culture Park Lecture room T6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과 영국의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만나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실무적 정보를 교류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UK/Korea Street Arts Seminar

: Outdoor Arts in the UK, Touring in Europe

For celebrating UK/Korea 2017-18 Creative Futures, Korean and British artists present workshops and seminars with practical information on overseas market entry.

주관 Organizer 한국거리예술협회(2017거리예술마켓, 문화비축기지 후속사업)
후원 Support 주한영국문화원

협력 Cooperate with
XTRAX,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특별시 XTRAX

예술가 워크숍

9.30~10.1 15:00~18:00

서울무용센터 Seoul Dance Center

컨템포러리 아크로바틱을 기반으로 한 거리무용 워크숍.
안 뢰르 무용단(Cie Yann Lheureux)의 <그래비티.0>(Gravity.0)에 참여하는 무용수 중 이스라엘의 현대무용수 요탐 펠레드(Yotam Peled)가 강사로 나선다.

Artist Workshop

Contemporary dancer and acrobatic circus artist Yotam Peled will give a street dance workshop based on contemporary acrobatics for artists who are interested in contemporary street dance.



강사소개 Instructor

Yotam Peled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서커스 아티스트

참여자
Participants

거리무용에 관심있는 전문 무용수 및 무용 전공생 약 10-15명
Professional contemporary dancers or students majoring in dance (10-15 persons)

참가비
Fee

1일 3만 원 | 2일 5만 원
30,000 won for 1day | 50,000 won for 2days

관객과의 대화

10.9 14:00~16:00

시민청 바스락홀 Baseurak Hall, Seoul Citizens Hall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비상>의 제작 과정과 작품 제작에 참여한 한국-프랑스 청년 간의 의견 교류, 작품 관람 리뷰 등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Open Discussion

Open Discussion is a time for sharing opinions and reviews of the performance with Korean-French directors, actors/actresses who participated in making SSAF2017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ject <Immortels-L'envol>

참여자

연출 Director Doriane Montaut, Patrick Dordogne

협력연출 Cooperative Director 정인영 Anyoung Jeong

한국 배우 Korean Actors & Actresses, 프랑스 배우 French Actors & Actresses

* 본 프로그램은 <비상>공연 관람자에 한하여 참여가능합니다.

* 한국어-프랑스어 순차중역

SSAF2017 전문가 프로그램

SSAF2017 Professional Program

네트워크 프로그램

Network Program

페스티벌 라운지

10.5~10.8 10:00~20:00

서울광장 Seoul plaza

페스티벌 라운지는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 전문가, 관계자의 휴식과 교류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축제의 메인 사이트인 서울광장에 꾸며진 페스티벌라운지에는 축제의 활기와 반기는 만남이 있다.

Festival Lounge

Festival Lounge is created to provide artists and special guests, such as festival professionals and delegates with a space where they can rest and interact each other. There will be vitality of festival and joyous meeting in this place, running Seoul plaza, central space of the festival.

전문가 등록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전문가 등록은 축제를 찾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거리예술과 축제라는 키워드로 만난 실무자들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Professional Registration

SSAF2017 Professional Registration is a service to provide a variety of performances and related program information to experts in each field who have visited the festival, and to create active networking environment for personnel who meet with the keywords of street arts and festival.

* 전문가 등록 홈페이지 사전등록(-9.29) 혹은 축제기간 현장 접수

* 본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일정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데이

10.6~10.7 10:00~12:00

페스티벌 라운지 Festival Lounge

'거리예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전문가가 만나 국내외 거리예술 관련 최신 이슈와 주요 관심사를 나누고, 한국 거리예술의 현 위치를 발견하고자 마련됐다.

Keyword Date

Keyword Date is a time for artists and professionals with the keyword of 'Street Arts'. During the session, they will be sharing issues about global street arts market, and art groups who are planning overseas expansion will present their works.

네트워크 파티

10.6 21:00~23:00 | 10.7 22:00~24:00

서울신문사 앞 The Seoul Shinmun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캐주얼한 파티로, 올해는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주한영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웰컴 라셉션(6일)과 축제 참여예술가들이 한자리에서 교류하는 네트워크 파티(7일)가 진행된다.

Network Party

Network Party is a relaxed and casual party in which artists and street arts professionals enjoy special meeting and communication. This year, part of celebrating UK/Korea 2017-18 Creative Futures, British Council hosts a welcome reception on 6th. On 7th, there will be a Network Party for artists participating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시민예술공작단 Citizen Artists

거리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예술공작단'은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며 축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 뜻한다. 사전 워크숍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가 공연에 대한 영감을 나누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시민예술공작단은 해외 공식초정작인 G, 비스타키의 '도시의 흔적들', 국내 공식초정작인 비주얼씨어터 꽃(CCOT)의 '마사지사'에 참여한다. 총 17명의 시민배우들이 서울 도심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Citizen Artists' are a group of people who make and enjoy the culture&arts themselves. Through the pre-workshop, citizens and artists are sharing the inspiration for the performances and creating new works for SSAF2017.

'Citizen Artists' are participating artistic process with the official program of SSAF2017 <Cooperazia> - 'G. Bistaki'(France) and <Massager> - 'CCOT'(Korea). 17 citizen actors will be on Seoul streets as artists of SSAF2017.

마사지사 Massager

비주얼씨어터 꽃(CCOT)
Visual Theater CCOT

시민예술공작단
김유미, 김일석, 김창원, 박세인
백승희, 심해주, 오재현, 이지형

10.5~6 17:00~18:00

10.7 16:00~17:00

10.8 17:00~18:00

무교로(서울파이낸스센터 뒤)

Mugyo-ro



도시의 흔적들 Cooperazia

G. 비스타키
G. Bistaki

시민예술공작단
정만우, 황서영, 김진순, 박지현, 신연주
유희정, 이영구, 이상아, 이현주, 김민재

10.6~10.7 21:00~22:10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길동이랑 놀자 Let's Play with Gildongees

10.5~10.8 | 축제장 곳곳 Around Festival Venues

'길동이랑 놀자'는 서울거리예술축제 자원활동가 길동들이 직접 축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자, 자신들만의 색깔로 선보이는 기획프로그램이다.

'Let's Play with Gildongees' is a special program that is designed to let Gildongees, the Seoul Street Art Festival volunteers hav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mselves and showcase a myriad of unique personalities. Let's meet Gildongees, our essential members and creators of the festival.

길동이에 여행사 Gildonee's tour



길동이 유랑단 The Wanderers Gildongees



축제, 어디까지 가봤니?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일차로 누리고 싶은 당신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여행. 나만 알고 싶은 꿀팁 코스를 축제 고수 길동이가 안내한다. 도심 속 일일 워킹투어, 걸어서 축제 속으로!

Festival, how far did you go?

For people who want to hang around the wonderful places only provided in SSAF, we invite you to a customized package tour and courses guided by festival masters, Gildongees. Just follow Gildongees. Daily walking tour in downtown. Walk through and get inside the festival!

*온라인 사전예약(선착순) Online pre-reservation program

움직이는 그림책방 Moving Library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기는 그림책 여행!

축제를 찾은 시민을 직접 마중 나가는 이동형 그림책방. 수레 한 가득 그림책을 싣고 축제 현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그림책과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즐겨버린 동심을 찾아 그림책 여행을 떠나요!

Let's go on a picture book trip with Moving Library!

Moving Library that comes to meet the citizens who are visiting the festival. We perform picture books and story narrating program to citizens by loading a bunch of books on the wagon and wandering around places in the festival. From children to adults, let's go on a picture book trip all together and return to your innocence of childhood!

길동이 축제에서도 가장 정신 놓고 놀 아는 녀석들이 뭉쳤다!

지나가는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는 흥겨운 축제댄스와 도심 속에서 펼치는 숨 막히는 대결 그리고 길동이 놀이프로그램까지! 즐겁고 유쾌한 기운 가득한 길동이가 축제 현장 곳곳 상.시.대.기!

The craziest Gildongees united right here!

They will capture the passers-by with their exciting festive dance, breathtaking games and Gildongee programs in Seoul city! Full of joyful and pleasant atmosphere, Gildongees are ready to pop up at the festival sites!

움직이는 그림책방 Moving Library

우리의 빛나는 조각들 Our shining pieces



10.6~10.8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찬란한 우리가 되는 너와 나의 위로

각자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모여 빛이 된다.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비롯된 자신만의 조각을 전시하는 시민참여형 설치미술로, '빛의 벽'을 완성해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찬란한 위로의 시간을 선사한다.

Comfort, between you and me, makes us shining

Each piece of story brings together and finally completes 'light'. In the way of simple questioning and artistic activities, people make their own pieces and display them on a built installation. Building a wall with bright lights, this process will present shining comfort, healing moments from deep down in your heart.

거리예술이동형전시 Street Arts Exhibition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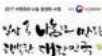
10.5~10.8 12:00~21:00 | 서울광장 Seoul Plaza

거리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더하기 위해 컨테이너 차량을 개조하여 만든 '움직이는 전시장'이다. 앞으로 국내 거리예술 축제를 찾아다닐 이 전시장에서는 거리예술의 다양한 형태와 역사, 현재의 모습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Street Arts Exhibition Tour' is a program to help the public to understand what the street arts is. It shows its history, contemporary form and how it can be categorized. With two converted containers, the exhibition will go on a tour around various domestic festivals, art spaces and events to meet you, all.



예술후원캠페인 : 우리 내기할까요? Art Donation Campaign



서울문화재단 재휴협력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0.5~10.8 | 서울광장 Seoul Plaza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내부자에서 기부자가 되는, 예술 후원 프로그램
나의 즐거움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예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문화로 웃음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내기할까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의 2017 지역축제 나눔활성화 사업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17

협력프로그램 Affiliate Program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Seoul Town Management Projects

10.5~8 | 무교재생공간 무교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 Mukyo Street and Front plaza of ChildFund Korea

다시 태어난 무교로, 거리예술을 만나다!

지역 단위 민간조직이 공공공간을 활용해 도심활성화 활동을 실행하는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가 서울거리예술축제와 만났다. 먹거리존, 플라마켓, 전통놀이마당 등과 함께 펼쳐질 거리예술로 더욱 활기찬 무교로를 한껏 즐겨보자.

Reborn Mukyo Street, Meet the Street Art!

Let's enjoy Seoul urban revitalization programs on Mukyo Street where the Street Art Festival will be held as well! These programs such as food zone, flea market and traditional playground are initiated and managed by privately-led organization as a part of 'Seoul Town Management' project.



임을 위한 몸짓 Performance for My Dear Love

서울문화재단~광주문화재단 교류협력 프로그램

히어로 댄스 스쿨 Hero Dance School
10.8 16:00 |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21min

서울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과 상호 발전 및 교류증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프로그램,
1980년대 광주의 5월을 리턴댄스로 각색한 창작공연이다.



시민참여 Be the Artists

시민퍼레이드 <움직이는 대로>

<비상> 참여배우

강인성 강지희 김선혁 김여은 양예석 양혜림 윤예은 임 원
정성택 Jonathan Aubart, Nathan Chouchana, Eliot Maurel
Jacob Auzanneau, Mattia Maggi, Tom Verschueren
Laurene Thomas, Yoanna Manileaud, Ines Grunenwald

라파커션

전우영 외 50명

시파 프로젝트

권동원 권해원 갈범준 감병호 김세인 김선혁 김현기 조관훈

울력

장이환 외 타악인 75명

(사)대한실용무용협회

송진영 허지선 정 별 정서연 이유영 유도화 이혜영 임화연
지현희 한미영 라벨라공단 탭그레이두무단
EJ DANCE COMPANY 나다아벨라댄스

서울사구립여성합창단연합회

이상주 구자의 구영순 김도연 김명선 김성희 김숙정 김순희
김애희 김옥람 김영선 김옥희 김정희 김진숙 김태선 김혜경
문미영 문정은 박계옥 박성순 박수신나 박영희 박정혜 박혜숙
배민자 송본래 안정숙 연명남 오수경 유소옥 유현순 윤경숙
이사호 이아숙 이정옥 정교원 정미복 정인화 정현순 차미나
최미희 한미라 한영희 한은숙 황선애

한국하모니카협회

복석규 외 30명

한국아코디언협회

박인규 이강효 주 흥 이현동 이부화 이상진 신현규 정화영
이상희 김미서 박은영 백다혜 장두봉 안명복 김성심 이재숙
최하선 김경순 유지은 양혜영 최낙복 문화철 이학무 외 20명

한국폴리리협회

성수현 외 30명

서경대학교 무용학과

박정연 정화현 정민혜 양은미 김혜리 유미라 김시진 최정윤
김유림 김나영 김보람 정선이 김혜원 장윤희 권은지 유애린
한소현 김해인 장은희 오수미 이 술 문현지 김서우 김예지
최준근 이기희 홍은재 장혜원 임유정 정다선 안혜진 백현아
이명근

서울방송고등학교

김다정 김민지 김상아 김선아 김송희 김여경 김영옥 김예람
김예지 김재민 김희은 민예준 박주향 박현진 배수연 석유진
성래원 송시우 이더은 이지혜 이혜빈 김유나 진재은 주윤수
최유진

관악농협 주부대학 동창회

강남임 강은미 고경자 고재순 공복임 김경애 김경자 김계옥
김매순 김마숙 김봉순 김봉애 김성자 김왕자 김영미 김영선
김영혜 김위자 김이자 김인자 김민정 김재복 김정숙 김정순
김재문 김주미 김지영 김해숙 나순희 남경희 남일열 노은희
문운옥 민경희 민순옥 박경옥 박계순 박봉춘 박순옥 박영자
박은숙 박정숙 박희수 배명숙 배애경 배윤경 범경순 변영진
성선자 손복여 손사은 송경남 신재원 오춘화 우호춘 유순남
윤경옥 윤미숙 윤성희 이금선 이금자 이덕희 이은순 이영표
이미경 이삼미 이상덕 이숙민 이애순 이영희 이옥희 이은미
이은실 이인성 이정기 이장남 이정복 이해정 이현진 이화연
임영녀 임영순 임요순 임용국 정미경 정미숙 정복애 정영숙
장영순 정윤순 정태선 정태일 제갈무성 조경자 조명자 조미정
조영순 조영자 조옥주 조재희 지민희 차건영 채효정 천태숙
최란희 최옥순 최외순 최장남 한숙희 하인순 홍근자 홍은희
황주옥

재미퍼커션아트

박옥목 황정호 최예찬 김 찬 송정훈 이창훈 윤두열 최완혁
김대훈 이 준 김영기 외 10명

대한색소폰오케스트라

이만숙 김상철 서진석 이마나 임두서 정영은

난타 '도리개'

윤영숙 박기자 김연희 한수연 윤보영 이춘하 하나로 황경환
강숙희 윤산숙 김하주 서영준 최송희 강하자 장정희 강현순
윤화숙 박동철 문철규 지규복 장진서 이유경 이은희 조예주
김민걸 김도윤 김규성

서벌아카데미

배상권 김보선 한우석 이민이 김민경 임성민 권오연 고우리
송은서 김민아 박재영 이서진 김민아 송하연 장예린 최상지
조정민 송지윤 신민지 신지아 김민정 김도연 김지수 강규리
강해나 황지효 황지후 채시아 박숙아 황시후 박고은 박시은
김시연 윤아진 정희라

한울람색소폰앙상블

김선홍 박익성 김석중 김충철 오오나 신 훈 신명옥 김태순
김은정 이연순 김홍운 손경이 조광식 외 20명

산대미당 국악예술단

김만수 외 50명

AIR SEOUL

캐빈송우원 신지연 외 45명 | 일반직 한종훈 외 25명

한빛단

김두천 대표 외 10명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강다빈 김두업 김진식 김한울 박지희 배민혜 손은지 송연규
유승하 유한임 육영민 윤주희 이유림A 이유림B 이유지 임재민
장성원 정수환 정해빈 조연선 조윤성 조영주 최창근 하지윤

한예진 한지원 이정희 임예슬 전하영 정혜지 조수현 주유미
김예진 김희원 박상은 전소연 정유나 고지혁 박영훈 김중원
이은지 서지현 박재원 김성현 이현진 배병휘 최하늘 갈범준
양학범 이건호 김미진 노영성

용인시 동천동 주민

이기봉 김해원 채세라 하철송 윤선화 허정은 허준오 최은정
류 민 오정화 조연우 조연수 김수정 오춘옥 정광일 최희영
정서현 정민재

클래리 애스브와

손소영 외 35명

<노는 대로>

서경대학교 미술예술학과

한혜정 성예지 이지희 장은지 조누리 진가운 황보슬 안수민
이다예 정다래 주현선 현자수

창작집단 탈무드

극단 더더더

시.작.: 시민들이 만드는 작은 축제

엔블의 일

김명수 김예현 소순우 신성규 최 훈

MC LEE BAND

이민철 홍성현 강신애 서정우

난타 '도리개'

윤영숙 강현순 김연희 박기자 윤보영 이춘하 하나로 한수연
황경환

인사이드 플로우

임 현 박정훈 박준하 김민국 장보연 김소희 김선진 김희경

재미퍼커션아트

박옥목 송정호 윤두열 이창훈 최예찬 최완혁 황정아 김대훈
김 찬

포뉴마블레단

김형민 강은혜 박영선 손선권 송창호 유송옥 이소영 이지은
허 웅 박익정 방옥희

한울람색소폰앙상블

김선홍 김석중 김은정 김충철 김태순 김홍운 박익성 손경이
신명옥 신 훈 오오나 이연순 조광식

아크

김태형 이유리 방선화 송이든 권규근 한세희 윤경연 유민규
임호영

엔앤팅

이우주 김나리 박휘민 정윤희 최혜훈 김정환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김 웅 최찬호 김종호 강해림 박희영 송승환 외 14명

낮은음자리

김미자 니명래 박민숙 이순희 최인양

더뮤조오카리나 앙상블

유명자 강현주 임혜선 정희옥 조영희 안미정 최영신 최원선

도시의 노마드

최보결 남남영 김미경 김현주 박가에 백미정 유상모 이경숙
이정옥 조영진 진영미

샤시카가 우쿨렐레

김미희 김유리 송현주 이현석 최보람

성신행복한어린이합창단

김이나 임태규 강요셀 김수진 김진우 김아린 김예다 김우정
김혜정 김호진 맹민준 맹희진 오화석 유인아 유 찬 윤소윤
이승주 이승준 이신지 이연악 이예빈 최은서 최혜미

여비아랍츠

김은영 권미경 권선숙 김미애 김순일 김경애 박성후 이윤주
이성옥 조재숙

케이크루

임은택 김세훈 박성영 임은택 임 함 이기혁 이도영 전예빈
김지영 이상민
차수진

코틴그롭

민세정 오재영 원익준 피트정

자원활동가 Volunteers

공연파트

해외공연 자원

조서호 김하림 강가영 한다희 박민주 홍은아 최은지 정하은
이유진(5821) 김영신 김근아 김지윤(1557) 오종찬 김성현
이진희 백지은 송윤수 허정원 양예림 김유미 강희진 사해주
송민정 나지현 이자민 차지원 최유리 윤선영 장가민 송해인
이정원 양새인 전효진 허지원 윤자수 김민아 김은아(0010)

페스티벌 라운지 운영

이재현 김다예 김유리(9836) 김재석 박지수 박진선 이예지
이지혜 지재정 최하영 한태웅

국내공연 자원

최운정 변지환 신은경 우혜정 김지영 김혜빈 니해린 정가을
남동현 곡소윤 김규리 김문정 김소연 김은성 김자윤(7162) 김현정
김혜진(5084) 남윤지 남지호 문선미 문혜란 박기수 박산재
박해민 배소연 석수정 손지나 송은서 심보경 심재영 오세나
유민혜(9632) 윤예빈 이경민 이도희 이민선 이선경 이영현
이지우 임자수 정미정 장지연 정주은 조희재 지형준 차희정
최승리 최윤선 최하영(9160) 한다혜 홍민지 황은솔 김세연
송상희 최지은 김재환 이다솔 이시은 구민정 이명진 이예린
박선미 최하영 김혜원 오소민 윤아영 이한솔(2177) 이희수
조수빈 김홍섭 손철승 강정훈 조현정 최하은

기획파트

시, 작,

김근혜 김아래 박신예

가부로

전민정 허선영 유소영 최태근 강원영

서커스놀이터

조서영 박웅희 이기는 한진현

퍼레이드 진행

홍석인 박은주 최한별 김현송 김보름 고혁훈 김도현 김민식
김선호 김영혜 김 흥 도선호 박연주 박지호 백승현 박은영
이예진 장민주 한하영

페막 프로그램

정호빈 김도예 이우재 민하연 정예림 강민조 강혜진 김수민(8598)
김지원 김재은(2579) 송재정 윤도희 이광로 이산하 이재원
조주희 최솔기 박해민 한진영 문정지 정민진 오도경 이보람
하유라 이진연 손상에 이보겸

홍보파트

디자인

김다은 여소빈 오지수 이하은 정유경

번역

홍지현 김다민

사진/영상

안용준 박경호 이수민 김동민 강이영 김희준 남진아 문효은
박소영(9355) 박소희 박주영 박한주 변지선 양수경 유경훈
유영승 유홍열 이예찬 임형준 조은임

오프라인 홍보

석화원 이사영 변수진 임해연 김민지(1939) 오네게 이재재
장경준 장은정 전상민 정재영 정해수 양예지 손수민 오지연
윤승연 신자수 박광진 이주현

운영파트

길동이 유랑단

김현아 박승호 김 선 송수미 정진원 김민지(1760) 김부섭
김예지(0492) 김항기 박소미 박수연 박정원 박하라 방미소
신윤주 오기는 우현선 문준호 이상아 이소슬 이은경 이준구
주다민 홍석환

그림책방

정진희 이지현 박상아 김현이 유은아 정대정 손지민 신하영
박연수 박주희

설치미술

김관희 지다빈 허보경 강수비 김예진 마진민 박소영(0939)
안서영 유덕환 윤혜정

길동이내 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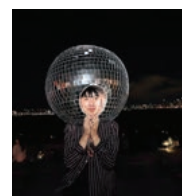
주혜선 이은경 고경아 권지홍 박솔기 박정윤 백승훈 정해민

사이트 운영

조승현 오병우 홍석준 송지영 조상현 최 희 황수빈 김민지
편나영 김은아 이원규 홍수연 정보경 이혜선 김보훈 고유진
김기쁨 김병화 김유나 박상은 박선우 성한경 유민혜(1678)
이소은 이수진 이예린 이지은(6845) 한승현 양정승 최재현
천유림 진보미 최혜미 최연희 김 란 조상범 송은수 안승연
이민지 조민정 객은미 오현성 김다연 박해솔 진혜윤

별동대

이은진 남호종 최영준 이한준 한진선 유 진 윤지은 이은영
조상익 주병용 황치연 박도윤 박형우 이화진 한신미 현대근
정승연 김정록 안옥희 노영진



Citicard Premium Dining Merchants

쿠폰 혜택 업장 리스트

- 1983 Kimd Jung 1983 Kimd Jung
- 굴산전 Geumgansan
- 대형도시락 The Frypan (City hall)
- 떡볶이 (한식)의 외화명명 떡볶음 Dodekam (Koreanfood specialty duck)
- 두루마리(교포) Durga (Mugyo)
- 두루마리(중국) Durga (Jonggaki)
- 두루마리(일본) Durga (Jongro 1 Ga)
- 두루마리 SFC Dishroom SFC
- 보나페티(강화음향) Bon appetit (Gwanghwamun)
- 서연 Seo Ah
- 세종실록 소갈비탕 종갓집 Seousikdang Sogabalsil Jongro 3 Ga
- 선영의대왕선영대왕 Sunyonghe (Nakjeonjeonmu)
- 세희의대왕선영대왕세희 Chefs Noodle (Jungdongkyunghyang art hi)
- 신인류의대왕 Singwonsseoreongtang
- 아비 (Aba)

- 양반재향교 Yeobin(Gwanghwamun)
- 요양동굴 Gyeongju(Gyeongju)
- 와라과일 Fruit(과일) Wara Wara Fruits(Jonggak tho)
- 와라과일 Fruit(과일) Wara Wara Fruits(Jonggak Zhe)
- 왕비(비경동2호점) Wangbi (Myeongdong 2he)
- 왕비(비경동3호점) Wangbi (Myeongdong 3he)
- 왕비(비경동본점) Wangbi (Myeongdong)
- 왕비(비시하교점) Wangbi (Cithall Mugyo)
- 왕비(비경동점) Wangbi (Jongno)
- 우리집 수루부 Woorijesoodoboo
- 원주축출장 Wonjuorchulsoo
- 육이요리점 Yukim (Euljiro)
- 육이(로동점) Yukim (Jonggak)
- 은하수(태평동점) Galaxy (Sejong hotel)
- 이십사점(1F) Yisipsajonki 1F C
- 이피리(1) Ipi(1)
- 전주집 Jonjujip
- 제주분회 JejuBonga
- 젠 Zen
- 죽여한소 Jokeulhansoo
- 주스점(시정역점) Jusicetam (City hall)
- 참깨집 Chambokjip
- 청계스퀘어 Chunggye Square
- 카페 돌담길 Cafe doldaemgil
- 카페 그레픽 Cafe grein
- 컨트리클럽점 Country Mans (Jongro)
- 캘리포니아 피자점 California Pizza Kitchen (Myeongdong M Plaza)
- 타이감점 Thai gend (Myeongdong)
- 피그리(로동점) Peggygy(JongroSamiro)
- 포탈 레스토랑 Potala restaurant (Jongro)

상시 혜택 업장 리스트 (10% 한정할인 또는 무료혜유 혜택)

Year-round offered merchants (10% instant discount or free menu)

- 사보텐(SFC) Saboten (SFC)
- 사보텐(광화문점) Saboten (Gwanghwamun)
- 사보텐(종로그랑시움점) Saboten (Jongno Gran Seoul)
- 싱카이(광화문점) Xingkai (Gwanghwamun)
- 키사라(광화문점) Kisara (Gwanghwamun)
- 불고기브라더스(SFC) Bulgogi Brothers (SFC)
- 비스트로 서울(광화문점) Bistrot Seoul (Gwanghwamun)
- 포시즌 호텔 서울(보통점, 영유안, 디어캐가, 키오루) Four Seasons Hotel
- 한와(광화문점) Hanwadam (Gwanghwamun)
- 뉴문 New Moon

- | | | | |
|---|------------------------------|----|------------------------------|
| 1 | 서울광장 Seoul Plaza | 7 | 청계천로 Chyeonggyecheonro |
| 2 | 덕수궁길 Deoksugung-gil | 8 | 광화문광장 Gwanghwamun Square |
| 3 |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9 | 무교로 Mugyoro |
| 4 | 세종대로 Sejong-daero | 10 |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
| 5 | 서울신로사 Jeol The Seoul Shinmun | | 서울로7017 Seoullo7017 |

항아오시는 길 Location

서울광장 Seoul Plaza

- ① 호선: 시청역 5, 6번 출구
 - ② 호선: 을지로 입구역 1, 8번 출구
 - ③ 호선: 광화문역 5, 6번 출구
- Line1: City Hall Station way out 5, 6
 Line2: Euljiro 1-ga way out 1, 8
 Line5: Gwanghwamun Station way out 5, 6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① 호선: 시청역 1번 출구
② 호선: 시청역 10번 출구
Line1: City Hall Station way out 1
Line2: City Hall Station way out 10

덕수궁길 Deoksugung-gil

- ① 호선: 시청역 1, 2번 출구
② 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Line1: City Hall Station way out 1, 2
Line2: City Hall Station way out 12

세종대로 Sejong-daero

- ① 호선 : 시청역 3, 4번 출구
 ② 호선 : 시청역 1, 6번 출구
 ③ 호선 : 광화문역 5, 6번 출구
 Line1: City Hall Station way out 3, 4
 Line2: City Hall Station way out 1, 6
 Line5: Gwanghwamun Station way out 5, 6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 ① 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종각역 5, 6번 출구
⑤ 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Line1: City Hall Station way out 4 / Jonggak Station way out 5, 6
Line5: Gwanghwamun Station way out 5

광화문광장 Gwanghwamun Square

- Line1: City Hall Station way out 3 - Pass by Deoksugung Palace and walk towards Koreana Hotel direction
Line5: Gwanghwamun Station way out 1, 2, 8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 호선 : 월드컵경기장역 2번, 3번 출구
Line 6 : World Cup Stadium Station way out 2, 3

서울로7017 Seoullo7017

- 호선: 회현역 4, 5번 출구
호선: 서울역 7, 8번 출구
Line 4: Hoehyeon Station way out 4, 5
Line 1, 4: Seoul Station way out 7, 8

[illegible]

※ 신용카드 납부분 가계경제에 위험이 없습니다. [신원별 1709-04-996 (유효기간 2017.09.15~2017.10.31)]

축제가 걸어온 길 History



하이서울페스티벌 2003 서울을 열자, 서울을 담자

기간 2003. 5. 24~25
장소 서울광장, 광화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종로 등
주최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모임,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주관 세종문화회관
참여인원 60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4 새롭게! 재밋게! 신나게!

기간 2004. 5. 1~9
장소 서울광장, 광화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월드컵공원, 명동, 고궁 등
주최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모임,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160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서울의 봄, 희망으로 피다

기간 2009. 5. 2~10
장소 서울광장, 청계천, 5대공원 (강북구, 덕수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181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10 서울의 몸짓, 세계의 몸짓

기간 2010. 10. 1~10
장소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한강공원 등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189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5 서울마니아 & 그린

기간 2005. 4. 30~5. 5
장소 서울광장,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월드컵공원, 명동, 고궁 등
주최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모임,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202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6 서울마니아! 서울, 서울in

기간 2006. 5. 4~7
장소 서울광장, 청계광장, 세종대로, 월드컵공원, 명동, 고궁 등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130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봄을 부르는 몸짓, 봄짓

기간 2011. 5. 5~10
장소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한강공원 등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176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12 도시를 움직이는 몸짓

기간 2012. 10. 1~7
장소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도심길 연결하는 거리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133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7 서울 역사의 재현

기간 2007. 4. 27~5. 6
장소 서울광장, 청계광장, 한강시민공원, 세종문화회관, 북촌 등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445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봄축제 서울의 봄, 궁에서 피다

기간 2008. 5. 4~11
장소 서울광장, 청계천, 5대공원 (강북구, 덕수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145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13 길에서 놀자

기간 2013. 10. 2~6
장소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종대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조직위원회
관람객 110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14 길에서 놀자

기간 2014. 10. 1~5
장소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종대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서촌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조직위원회
관람객 110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 서울, 여름에 빠지다

기간 2008. 8. 9~17
장소 서울광장, 여의도, 산유도, 독섬 등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109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가을축제 서울의 가을, 축제로 물들다

기간 2008. 10. 3~25
장소 서울광장, 청계광장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584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15 길에서 놀자

기간 2015. 10. 1~4
장소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서림미술관, 서울역, 시민광, 세종대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조직위원회
관람객 100만 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 겨울축제 순백의 겨울, 순수의 서울

기간 2008. 12. 19~1. 18
장소 서울광장, 청계광장,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독립문 등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261만 명



서울거리예술축제 2016 서울도시 공간의 재발견

기간 2016. 9. 28~10. 2
장소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역광장, 청계천로, 세종대로, 덕수궁길, 서울서림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세종로공원, 문학역서울284, 물빛문충동61, 길음1동, 망원1동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관람객 75만 명

석유에서 문화로 문화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

Seoul Future Conference 2017 서울미래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와 교육

2017년 10월 25일(수)
포시즌즈 호텔 서울, 그랜드 볼룸(3F)

주요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12:00	<p>Session A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미래 일자리</p> <p>강연 대니얼 서스킨드 옥스퍼드대 교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안) 이민화 KCEA 이사장</p> <p>패널토의 좌장 -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 참여자 - 스탠퍼드대 교수</p>
13:00~15:00	<p>Session B 협업하는 미래를 키우는 미래 대학교육</p> <p>강연 켄 로스 미네르바스쿨 아시아지역 디렉터 조백 숙명여대 석좌교수</p> <p>패널토의 좌장 - 김우송 한양대 교수 참여자 - 에이미 라우즈 실리콘밸리 LVM 전략담당 컨설턴트</p>
15:15~17:15	<p>Session C 인생 N모작 시대 인재개발</p> <p>강연 가재산 파울스그룹 대표 조영탁 유넷 대표</p> <p>패널토의 좌장 - 이우영 한국물리학회 이사장</p>



대니얼 서스킨드
(Daniel Suskind)



짐 플러머
(Jim Plummer)



에이미 라우즈
(Amy Rouse)



켄 로스
(Ken Ross)



2016 ~ 2018. 03



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



www.facebook.com/2018cultureolympiad

문화올림픽이란? (IOC, 「Cultural Olympiad Guide」)

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척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해

SAMYANG

맛의 삼매경

삼양

三養라면

SINCE 1963

매운맛

마이게~ 찰요~



맛의 삼매경에
빠질 준비되셨나요?

원조의 자부심으로 만든 삼양라면 매운맛!
한 번 먹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삼양라면 매운맛!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쌈브리핑 SSACC BRIEFING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가을 오픈 스튜디오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Autumn Open Studio

2017. 10. 28. SAT - 29. SUN

거리예술빅스트 작품 발표 Street Arts Next Performance

서커스빅스트 작품 발표 Juggling Omnibus Performance

FAI-AR 6기 졸업생 공연 FAI-AR 6th Graduates Performance

서커스 예술놀이터 체험 Circus Arts Education

거리예술 이동형전시 Street Arts Exhibition Tour

예술불꽃 화랑 공연 HWARANG Art Pyrotechnics Performance

관사 연계 기획전시 Special Exhibition in SSACC Residence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er

T. 02-3437-0099

www.ssacc.or.kr

대한민국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3.1항일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100
1919-2019
3.1절을 맞이하여 100년
100년

The First Drawing for Dream (2012)



A Dream You Dream Together (2013)



Connecting the Hearts (2014)



중앙시장 개선사업 (2014)



Life is Art, Art is Life (2015)



구로 디지털단지 개선사업 (2015)



Everything is one (2016)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2016)



Finding Yourself (2017)



32년,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한 리더의 역사 한성자동차의 미래입니다.

한성자동차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 메세나협회와 함께 2012년부터 미술영재 장학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능과 꿈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 수여 및 유명 아티스트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써머캠프, 연발전시회 등을 통해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성자동차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SFAC)과 MOU를 체결하고, '드림그림' 장학생들과 함께 재능 나눔을 통해 서울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예술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성자동차는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전시장
기타 (02) 513-3000 상경 (02) 550-4000 서부 (02) 550-5000 남부 (02) 532-3421 용인 (02) 709-3800 서부경기 (02) 6007-0100 기타 (03) 1710-6000
인천 (032) 770-8800 안동 (032) 860-3300 수원 (031) 740-9000 안성 (031) 894-6000 대전 (042) 363-2000 대전 유성 (042) 602-2000 광주 (033) 741-8800
www.hansung.co.kr



씨티카드 프리미엄 다이닝

Citibank Premium Dining

엄선된 1,000여 개의 레스토랑에서

최고 10% 할인 또는 무료메뉴 혜택을 누리세요!

Enjoy up to 10% discount or free menu at 1,000 dining restaurants!



www.citibank.co.kr

www.facebook.com/Citikorea

씨티모바일앱

씨티카드라서 더 즐거운 2017 서울거리예술축제

기간 2017년 10월 5일(목) ~ 10월 8일(일) 오후2시~8시
※ 10월 5일은 오후 4시~8시 운영(Citibank Lounge 만 운영)

장소 서울광장(Seoul Plaza) Citi Festival Zone

행사주요내용



Dining Zone

- 생어거스틴 : 선착순 무료메뉴, 1만원 이상 결제 시 팜오브(수박주스) 1잔 무료
- 차면식당 : 선착순 무료메뉴, 15% 현장할인
- 존록델리이트 : 소시지 30% 할인



Citibank Zone

- 인형뽑기게임
- 캘리그래피 서비스
- 아트 캐릭터 숭사탕
- 타로, 트릭아트 및 경품 이벤트

현장 협찬



※ 무료 메뉴는 선착순 제공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씨티카드BC기입 체크카드(신용포함) 제시 및 결제 시에 한함

※ 본 행사는 입제 상황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카드 결제대금을 결제일자에 미납하는 경우 최저 연 14.1% ~최고 연 27.9%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회원별, 연체기간별 차등적용)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심의필 1709-04-956 (유효기간 2017.09.15~2017.10.08)]

주최

서울특별시 | 서울문화재단

협찬



후원

